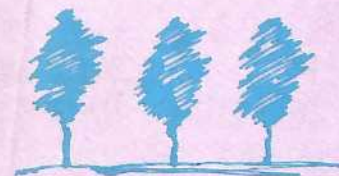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4

인권하루소식

합본 IV 호
(제301~400호)



1995. 7

민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1996년 4월 10일

인권정보자료실
R1.1.4

민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합본 IV

(301호 - 400호)

1995. 7.

인권운동사랑방

일 / 러 / 두 / 기

-<인권하루소식> 합본 IV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1. <인권하루소식> 네번째 합본호는 94년 12월6일-95년 5월11일 사이의 지령 301호부터 400호까지를 담고 있다. 이번 호에는 94년 한국의 인권상황을 정리하는 '94년 10대 인권뉴스'와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인권침해자와 인권옹호자'가 실려있다. 또한 95년 상반기 주요 인권소식으로 국내 최초 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주요 내용을 모니터한 기사와 국가보안법에 대한 역사적 판결,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관한 내용을 실고 있다.

2. 본문은 오자 수정을 본 것 외에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실었다.

3. 본문 색인을 부록으로 실어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묶었다. 단, 합본3호까지는 종합 색인을 묶었던 것을 이번에는 합본4호 기사만 색인으로 묶었다. 부피가 너무 많아 모두 수록하기는 벅찼기 때문이다. 합본5호를 발행할 때 500호까지의 주요 기사색인 목록을 수록할 예정이다. 색인 이용은 색인 앞에 나온 범례를 참고하여 이용하면 찾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4. 이번 호에는 머리글을 생략하고, 부록으로 국가보안법 관련 주요 재판자료를 실었다. 이 자료를 보면 국가보안법이 국내외로부터 우리나라 인권 향상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부쩍 많았던 시기에 사법부가 보인 고민의 흔적을 적나라하게 살필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연구자들에게나 국가보안법 폐기를 위해 고민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여기에 실린 기사나 기초자료로 부족한 독자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자료실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1995. 7. 20.

인권운동사랑방

차 례

일러두기 합본 4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 3

부 록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 자료 / 249

1.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 재판에 대한 부산지법의 위헌제청결정문 — 251
2. 전국연합 이창복 상임의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문 — 257
3. 이창복 의장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서(리영희, 한양대 교수) — 265
4. 박치관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 275

색 인 <인권하루소식> 합본4호 색인 / 283

제301호(94.12.6, 화) / 23

- 1면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2면 ·동티모르 로케 로드리게스씨 6일 출국, 한국에 동티모르지원그룹 만들어지길 희망
성공회대학교 95년부터 「인권과 평화」 강좌 개설

제302호(94.12.7, 수) / 25

- 1면 ·노동자대회 참석이유로 취업연수생 자격 발탈
·기사연 기독교인 통일인식 조사, 국보법 독소조항 개정 또는 법적용신중 83.1%
- 2면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항소심, 원고 신교수측증인 증언과정 진술 번복
·1,2일 방콕에서 아시아 여성법정 열려, '여성인권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제303호(94.12.8, 목) / 27

- 1면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여성대회 준비회의 열려
·고문방지협약 해 넘겨, 국회 의통위에서 핵심조항 유보이유로 야당반대
·과로사 상담센터 1주년 기념식, 과로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예방 강조
- 2면 ·미군세모녀 폭행사건에 컴퓨터 통신 분노폭발
·<자료-동아시아여성포럼>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여성대회 준비회의

제304호(94.12.9, 금) / 29

- 1면 ·KNCC 인권위 20주년 기념식, 인권상 정대협 이효재·윤정옥대표 수상
·교회협인권상 수상 윤정옥대표 수상소감
- 2면 ·<자료> 미군 세모녀 폭행사건 피해자 설은주씨 편지(발췌)

제305호(94.12.10, 토) / 31

- 1면 ·AI 한국지부 '국보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협약 유보없이 가입' 등 촉구
·남녀고용평등법 고발 관련 검찰 결정 아직 유보
·전국연합 이창복의장 징역 10개월 선고
- 2면 ·제46주년 기념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특집① "인권운동의 화두"(김형대변호사)

- 불교인권위, 양심수 겨울나기 펼쳐
- 3면 ·단체탐방 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제306호(94.12.13, 화) / 34

- 1면 ·「샘」사건 고영국씨 5차 공판, 증인신문 혐의사실 부인
·민가협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성황
·12·12 반란자 기소·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 2면 ·변협 강연회, '조약가입국 칭호인기' 조약내용 홍보, 감시제도 필요
·CIIR 아시아과장, 개발·여성 권리 기획준비 위해 방한
·인권간행물

제307호(94.12.14, 수) / 36

- 1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엄
·친정배변호사, 아태민간단체 촉진팀회의 참석
- 2면 ·11월28-30일 타이에서 아시아 인권교육정보센터 워크숍 개최
·여성단체등 용모제한철폐 촉구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소

제308호(94.12.15, 목) / 38

- 1면 ·서울지법 항소2부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경찰비리 폭로경찰관 보복구속 의혹, 김석원 전 경장 구속
·정강용씨 불합격은 장애인차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면 ·동티모르를 지원하는 시민들의 첫모임
·서울지법 항소2부 미란다원칙 판결요지
·여성개발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제309호(94.12.16, 금) / 40

- 1면 ·전교조, 민우회등 여사원모집 채용시 용모제한 기소 촉구대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7주년 심포,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2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발족
·재일「비전향장기수 김인서등 송환을 실현하기 위한 모임」 적십자사에게 송환노력 촉구

제310호(94.12.17, 토) / 42

- 1면 ·두밀분교 6학년생 두명 중학배정 반려, "법적 근거없다"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주요 조항
- 2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작은 글(1)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류은숙)
·「만남의 집」에서 추위에 떠는 정신대 할머니

제311호(94.12.20, 화) / 44

- 1면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수사 촉구
- 2면 ·전교조 새위원장에 정해숙 현위원장 선출
·최태호이교대책위, 진상규명 진정서 제출 위해 상경
- 2·3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류은숙)

제312호(94.12.21, 수) / 47

- 1면 ·실은주씨등 세모녀 폭행사건, 한국검찰 미군병사 소환조사에 미8군 불응
·불교인권위, 총회 공동대표 선출 ·사형폐지위원회등 신설
- 2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작은 글(3)
- A규약의 실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류은숙)

제313호(94.12.22, 목) / 49

- 1면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자의적인 정보공개 제한 가능성도 있어
·천주교 조작간첩대책위, 조작혐의 장기수 면회
·노동부, 여성근로자 50세 넘어도 유급생리휴가 인정
·청소년단체 「샘」사건 보고서 발간
- 2·3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작은 글(4)
- A규약에 관한 정부최초보고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류은숙)

제314호(94.12.23, 금) / 52

- 1면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강화여성의 전화 개소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의 처분 청구소송
·황관중씨, 고교생 의식화교육혐의 국보법위반 구속

제315호(94.12.24, 토) / 53

- 1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세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소환조사 요구
·장애인 재활시설 해인권 비리 폭로 노조위원장 구속
·「샘」사건 재판, 증인불참으로 연기
- 2면 ·국제엠네스티 유정식씨 검진 요구
·아시아여성회의 내년 1월 인도에서 열려
·고교 재학생, 졸업생 「샘」 「희망」등 송년행사 준비
·필리핀에서 1월 24-27일 아태지역 인권과 개발에 관한 사회활동가회의 개최 예정
·연말연시에 감옥에 있는 장기수에게 연하장을 보냅니다(전국 장기수 주소록)

제316호(94.12.27, 화) / 55

- 1면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
·서울민사지법 「피의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보 제시 없으면 위법」 판결
- 2·3·4면 독자가 뽑은 94년 인권 10대 뉴스
박홍충장 주사파 발언파동/ 12·12 유죄인정하고도 검찰 불기소/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우조교 승소/ 안기부 프락치 배인호 양심선언/ 무너진 성수대교/ 문민정부 긴급구속장 남발/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국제법률가위원회 정신대 특별보고서 제출/ 현대판 노예노동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가평 두달본교 폐교, 주민들 폐교철회 첫 소송/ 도표를 통해 본 94년 인권침해자/ 도표로 본 설문대상별 10대 뉴스 반응도

제317호(95.1.5, 목) / 61

- 1면 ·김영삼 대통령 「킹평화상」 수상자로 결정, 인권침해자 세계적인 인권옹호자로 등감
·신귀영씨 일가 간첩사건 재심신청 의견서 제출
- 2면 ·연말, 연초 인권소식-비전향장기수 소환요구/ 김선명석방요구 목요집회/용모제한고발 무혐의 처리/최이교사망사건 불기소에 대책위등 항소/오종렬의장 긴급구속
·각 인권단체 새해계획-여연·정대협·성폭력상담소·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제318호(95.1.6, 금) / 63

- 1면 ·유엔 자의적구금실무분과 황석영씨등 「자의적 구금」 결정
·AI 「북한인권보고서」 무단으로 배긴 한국정부, 보고서 회수등 약속
- 2면 ·강원 고한 광부들 9일째 농성, 성희적 강원도의회 의원등 삭발 단식농성
·부산지법 특수부 고문경찰 조사 시작
·AI한국지부 성명발표 고문방지협약 유보조항 조속가입등 촉구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제기, 대한변협, 형사소송법개정안 의견서

제319호(95.1.7, 토) / 65

- 1면 ·세모녀 폭행 미군 범죄자 소환 거부 두달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규탄대회 가져
·위안부 삶 영화로 조명 <울밑에 선 봉선화야>
·경상대 장상환교수등 복직
- 2면 ·황석영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 결정(발췌)
·황석영, 이근희, 최진섭씨 사건 개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제320호(95.1.10, 화) / 67

- 1면 ·2월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고문방지조약 가입서 기탁
·고문방지조약 청원권 유보철회 요구, 인권협 성명발표
- 2면 ·고문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한국인 공장장 내팔여성노동자 강간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제321호(95.1.11, 수) / 69

- 1면 ·백홍용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성희롱은 여성의 「일할 권리」 침해,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제4차 공판일려
- 2면 ·분신 전력 임윤선씨 경찰 프락치로, 「국제사회주의자들」 구속자 가족대책위 폭로
·홀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못할 국보법 수감자 김연인씨
·노사관계부문에서 세계화 추진 촉구, 민주노총준비위 성명발표
·「국제인권조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해설등-

제322호(95.1.12, 목) / 71

- 1면 ·외국인취업연수생 농성4일째, 민주노총준비위등 공대위 구성 움직임
·변협, 종군위안부 관련 국내 모든 자료공개 건의
·네팔노동자 성폭행한 공장장 긴급구속

제323호(95.1.13, 금) / 72

- 1면 ·채불임금 지급·노동자 자격 인정요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대위 발족
·부산 유괴사건 현장검증 범행 불가능 장소 판명
- 2면 ·남매간첩단 사건 전면재수사 요구, 인권·사회단체 안기부앞 규탄시위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단 4월경 한·일 방문
·공공부문 노조전임자 축소기도 반대, 민주노총준비위
·인도네시아, 독립요구 동티모르인 무차별구타 연행, AI 석방요구 편지보내기 운동 펼쳐

제324호(95.1.14, 토) / 74

- 1면 ·박종철열사 8주기, 고위 관련자들, 국회의원, 변호사등 사회지도층으로 활약

- 재판부 증인재구인 예정 「샘」사건 재판연기
- 2면 · 노예노동 공식사과 못해, 노동부 직원 외국인 노동자 농성장 방문
 -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
 - 고 박종철열사 부친 박정기씨 인터뷰
 - 외국인노동자 농성장에 적힌 시

제325호(95.1.17, 화) / 76

- 1면 · 서약서 강요는 기본적 인권침해 서강대재학생 86% “서약서 작성 자체 부정적”
 - 서강대 박홍총장 전화 인터뷰
- 2면 ·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아사히 신문 내팔인 명동성당 농성 크게 보도
 - 불법채류자와 고용업체 단속강화, 중소기업협동중앙회
 - 유엔51차 인권위 모니터 위해 출국, 이성훈씨 인권협대표로 참석
- 3면 ·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전면백지화 요구, 주민 김계월씨 사망
 - 고 박종철열사 8주기 추모식 임수
 - WSSD 3차 준비위 민간단체 대표 출국

제326호(95.1.18, 수) / 79

- 1면 ·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는 종교·사상·양심의 자유 위배, 인권단체 서강대 앞 시위,
 - 서강대총학생회 ‘서약서되돌려받기’ 전개
 - 체불임금전액지불, 주44시간 근무등 합의 내팔노동자 농성해산
- 2면 · 인천 핵폐기장 시민대책위 구성, 굴업도 김계월씨 가족장
 - 불교인권위, 비전향장기수 송환위한 서명 시작
 - 여성의 전화 신임회장 신혜수씨 선출
 - 고 박종철열사 8주기 추모 및 기념강연 안상수변호사 강연요지(발췌)

제327호(95.1.19, 목) / 81

- 1면 ·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부산지법 제3형사부,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침해
 -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논평, 불교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
- 2면 ·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곰보얼굴에 화장 덧씌운 꼴”
 - 용역깡패 노점상 덮쳐 사당동노점상 4명부상
 - 외국인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일지(1월9~17일)
- 3면 ·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1) (2) (3)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

제328호(95.1.20, 금) / 84

- 1면 · 부산 유괴범 살해사건 고문 조작, 남씨 범행시각에 친구와 통화 밝혀져
 - 서강대총학생회, 총장 사과 ‘서약서 반환’결의
- 2면 · 두밀학교 살리기운동 토론회, ‘개성과 창조성·인간성살리기 교육의 첫걸음’

제329호(95.1.21, 토) / 86

- 1면 ·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들 생존권 찾기 한달 보름
 - 고 황인철변호사 2주기, 추모문집 출판기념회
- 2면 · 단체탐방 39/노동정책연구소

제330호(95.1.24, 화) / 88

- 1면 · 고문조작의혹 부산국교생 유괴사건 피의자에 사형구형

- 언론의 인격권 침해제재 「FEEL」 호스티스 기사
- 2면 · 인권협 킹평화상 수상반대
 - AI 한국지부 95년 사업계획 확정 인권교육·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등 계획
 - 용역직원 동원, 노점상 생계위협
 - 서울변호사회 회장 김성기 변호사 선출
 - 의문사 청원심사소위 구성하기로, 국회법사위

제331호(95.1.25, 수) / 90

- 1면 · 정부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 최초보고서 제출, 구체적 내용 전무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 2면 · 제네바 소식①-유엔 10차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 회의 열려
 - <해설> 「인권운동가 지원실무분과란」란?

제332호(95.1.26, 목) / 92

- 1면 · 인권협, 김대통령 킹평화상 수상 반대시위, 김영사 “한국 인권상황 잘 모른다”
 - 남총련, 현재 12·12의 정치적 결정 규탄
 - 전쟁포로 장기수 송환에 응답, 북한 불교도연맹
 - 국제엠네스티,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가혹행위 체조사 요구
 - WSCF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개최 2.17-26 홍콩

제333호(95.1.27, 금) / 94

- 1면 · 대한변협, 김남매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자의적 구금’ 6명 양심수 석방촉구, 민가협 목요집회
- 2면 · 미군의 비협조로 1년동안 담보, 미군 아리랑 택시 정양환씨 폭행사건 1년
 -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요약

제334호(95.1.28, 토) / 96

- 1면 ·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1)/용모 때문에 차별받는 실업고생들’
- 2면 · <특별기고>킹평화상 수상과 안기부 프락치공작수사-이덕우(민변 대외협력위원장)

제335호(95.2.4, 토) / 101

- 1면 · 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지난 30일 개막-황석영씨등 자의적 구금, 정신대 문제 논의 예정
 -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 2·3면 「인권하루소식」 1월분 총목차(317-334호)

제336호(95.2.7, 화) / 104

- 1면 ·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 문국진씨 재입원
 - 푸른영상, 출옥 장기수 다큐멘터리 제작
 - 장기수가족후원회, 비전향 장기수 송환운동 전개하기로
- 2면 · 10문10답으로 알아보는 유엔 인권위원회

제337호(95.2.8, 수) / 106

- 1면 · 오늘 고문방지조약 발효-고문피해자들 고통의 삶 계속돼
- 2면 ·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 40여 국내의 인권단체 소개-인권운동사랑방, 『한국인권단체편람』 1판 발간
- '인권운동가 지원 선언문' 3개 항목만 합의-인권운동가 지원실무분과 10차 회의 종료
- 3면 ·제네바 소식②-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사무처장 티코노프씨 인터뷰
·'사회권위원회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 지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있어야'

제338호(95.2.9, 목) / 109

- 1면 ·반성문 작성 않는다는 이유로 자퇴 강요-동일여고, 자치활동 관련 학생 3명 중징계
- 경찰, 노씨 연행은 '임의동행' 주장-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등 혐의손배소송
- 검찰 법난 무혐의 처리에 불교단체 비난 성명

제339호(95.2.10, 금) / 110

- 1면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학교 허락없는 집회 참가는 곧바로 징계
- 2면 ·<국제인권소식> WSSD 제3차 준비회의 1월 뉴욕에서 열려
·'제1회 인권과 개발에 관한 아태지역 사회사업가 회의'-1월, 필리핀
·제일한국인등 정치범 석방 요구 일본 서명부 전달
·인권협 95년 활동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

제340호(95.2.11, 토) / 112

- 1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구성
·용산미군기지 인간사슬로 포위하기로,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미군규탄집회
-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서울지검, 특별지시
- 전두환 최규하등 삼청교육 관련 재고소
- 인권간행물(단체)

제341호(95.2.14, 화) / 114

- 1면 ·변호인단 원고인 알리바이 입증 새 증거 제출,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제12차 공판에서
·현행 변호사 수입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설문조사 발표
- 평화인권교육 홍보, 정보교환등 추진
- 2면 ·'부산 신씨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주간인권호름(95년 2월6일-12일)

제342호(95.2.15, 수) / 116

- 1면 ·두밀분교생 15명 유급위기, 가평군 교육청, 두밀분교생 진급불가 통지 보내와
·신교수측 증인과 엇갈리는 증인 채택, 우조교 항소심 6차 공판
- AI, 정부에 석달윤씨 석방·재조사 촉구 서한
-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 2·3면 ·제네바 소식③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
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 받아-제51차 유엔 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쟁점들-

제343호(95.2.16, 목) / 119

- 1면 ·전 부산대 학생회 간부 대거 불법연행, 경찰,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발표
- 일제잔재 청산 연대투쟁 결의, 「바른역사를 위한 민족회의」 창립
- 파업 회사에 통보한 노조 간부 구속, 부천 대흥기계 노조 파업 4일째,
- 민주노동준비위, 노동탄압 연대투쟁 결의

- 2·3면 ·미 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
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제344호(95.2.17, 금) / 122

- 1면 ·남북 공동으로 정신대 문제 해결 촉구-오는 27일, 서울에서 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열려
- 김삼석 남매간첩사건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 민가협 목요일집회
- 부산대 「자주대오」 공대위 구성키로, 부경총련, 규탄집회 가져
- 「샘」 회장 집행유예
- 2면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 남총련과 광주지역을 노린다-남총련 2월 현재 구속 52명, 수배 11명
- 유엔 인권관련 주요 회의 및 행사 일정(1995년 1월-9월)

제345호(95.2.18, 토) / 124

- 1면 ·3월이나 6월 전국적 규모의 간첩단 발표된다?
·국제엠네스티, 「자주대오」 사건 긴급행동 호소, 학생, 재야운동단체 대책 마련에 분주
- 민간인 군부대에 연행 일주일, 가족에게 전화로만 알려
- 2면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3)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인격모독, 프라이버시 침해
- 인권간행물(자료)

제346호(95.2.21, 화) / 126

- 1면 ·미군기지 '인간 떠릿기' 무산, '미국과의 외교 마찰 고려' 경찰력 동원 원천봉쇄
- 국가보안법 철폐등 결의,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수배자 연행돼
- 2면 ·검열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5일 전기통신사업법등 개정안 발효
-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 주간인권호름(95년 2월13일-19일)

제347호(95.2.22, 수) / 128

- 1면 ·한국 세계로부터 '인권침해국' 낙인, 유엔인권위 제51차 회의 3개 보고서에서 지적당해
-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공대위」 항위시위
- 두밀분교 소송 연기
- 2·3면 ·제네바 소식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51차 유엔인권위 3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제348호(95.2.23, 목) / 131

- 1면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정부, 손종규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답변
- 「샘」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
- AI 한국지부, 25일 사형제도 자료집 발행
- 서준식씨 공판 무기연기
- 2면 ·두밀분교생 95년 새학기 등교결정-"폐교철회소송 끝까지 하겠다"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2차준비모임
- "국가보안법으로 무죄를 받아내겠다"-「샘」사건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씨 인터뷰-
- 「샘」 사건 지름

제349호(95.2.24, 금) / 133

- 1면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한국대표 발인문 전문>
 - 사법개혁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돼야, 민변 의견 밝혀
- 2면 ·<IBA 세미나 보고서>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 집회금지 두시간전 통보도 적법하다, 서울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의신청 각하

제350호(95.2.25, 토) / 135

- 1면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원피고인등 3인은 무죄
 - 한국형 경제개발, 제3세계 모범일 수 없다-제3차 인간사회발전포럼-
 - 문재인 변호사 인터뷰-가혹행위 없도록 과학수사 정착되어야
- 2·3면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각종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광고> <인권하루소식>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제351호(95.2.28, 화) / 138

- 1면 ·"일본 정부는 지금 그 남자와 똑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다"
 - 3차 아시아연대회의 개막
 - 시-이젤랑 돌려다오
- 2면 ·미군범죄 미군당국의 동의 후 공개
 - 경찰청 지시에 운동본부 "미군 당국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는 배신행위" 비난 성명
 - 빨치산 비전향 출옥 장기수 윤기남씨 위암 사망
 - 주간 인권호름(95년 2월20일-26일까지)

제352호(95.3.2, 목) / 143

- 1면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 배상특별법 제정 촉구, 아시아연대회의 폐막
 - 아시아 5개국 여성이 함께 한 정대협 수요시위
- 2·3면 ·「인권하루소식」 2월분 총목차(352-373호)

제353호(95.3.3, 금) / 146

- 1면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민가협 목요집회
 - 두밀분교 포기할 수 없다, 학부모 경기도 교육감에 입장 전달
 - 고난모임, 올해 인권과 통일선교를 중심사업으로
 - <인터뷰-패리스 하비 목사>
- 2면 ·제네바 소식⑤-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4주간 회의 주요쟁점들-
 - 성폭력상담소 토요법률상담, 변호사들 직접 나서
 - 「국경선없는 기자들」 최진섭씨 석방 촉구

제354호(95.3.4, 토) / 148

- 1면 ·탈출을 강요당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여권반환·인권개선등의 약속 전혀 안 지켜
 - AI, 김대통령 유럽 순방에 인권문제 논의 촉구
 - <긴급> 대전교도소 철야농성 경찰 강제연행 위협
- 2면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 인권(마지막회): 「2+1 제도」 1년 사실상 교육 포기
 - 인권간행물(단체간행물)

제355호(95.3.7, 화) / 150

- 1면 ·「국제앰네스티」 전세계 회원들 긴급행동 시작,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김수옥씨등에게 국제적인 처우 요구
 - WSSD에 민간단체 참가, 한국상황 홍보
 - 민가협 대전교도소 밤샘농성 3일만에 풀어
- 2면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 다채롭게 꾸며
 - 여성후보들 지방선거 적극적으로 참여
 - 주간인권호름(95년 2월28일-3월5일)

제356호(95.3.8, 수) / 152

- 1면 ·핵폐기장 반대운동 탄압 무법천지, 굴업도 주민 명동성당 비닐천막 항의농성 6일째
 - AI 한국지부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서명부 전달
 - 94년도 아내구타 2천1백26건, 여성의 전화 상담 통계 발표
- 2면 ·제네바 소식 ⑥-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4
 - 동티모르 관련 의장 성명서 채택-5주간 회의 주요쟁점들-

제357호(95.3.9, 목) / 154

- 1면 ·북한 장학생 발언 박홍총장 증인으로 채택, 이상우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원 교육 실시
 - 여연 3.8 여성의 날 성명,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 2면 ·여성을 주제로 세계적으로 캠페인 펼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성명 발표
 - 선거법 개악음모 중단, 5.18책임자 처벌 요구-광주교도소 양심수 단식
 - <현장스케치> 정부, 늙은 노인들 꼬셔 이간질하려-굴업도 핵폐기장 반대농성 7일째
 - 인터뷰-핵폐기장 결사반대 덕적면 투쟁위원회 조직부장 정창준(39)씨
 - 정부 투명한 핵정책 명확히 밝혀야

제358호(95.3.10, 금) / 156

- 1면 ·광주지검, 비전향 장기수 장례식 수사
 - 안기부 반국가단체 성원회합 인지 1년간 방치-구국전위 사건 안재구씨 항소심 2차 공판
- 2면 ·가족폭력방지법 제정에 힘쓸 터, 여성의 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
 - 김홍신씨 사건은 표현의 자유 탄압, 민족작가회의 성명
 - <인터뷰>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종걸 변호사, 최소비용 소송 힘쓸 터

제359호(95.3.11, 토) / 158

- 1면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 1심재판결과 수사발표와 많은 차이
 - 분단50주년 국보법 철폐 최대 과제로, 민가협 10차 총회 가져
- 2면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 박홍총장 법정에서 북한 정학생 관련 증언 용의
 - 인권간행물(인권자료 및 단체간행물)

제360호(95.3.14, 화) / 160

- 1면 ·비전향장기수 장례 파문 확산 조짐
 - 인권문제 이해증진 목적 사진전 열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2면 ·<현장스케치> 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장애노점상 최정환씨-산소호흡기로 연명

주간인권호름(95년 3월6일-12일까지)

제361호(95.3.15, 수) / 162

- 1면 ·경기대 학생회 간부들 또 대거연행, 서울경찰청 경기대 학생회간부들 대거연행
·<인권어록> 이승만과 나라세우기전, 한국 언론의 두 얼굴
- 2면 ·고 윤기남씨 장례 관련 12명에 출두요구서
·고난모임 장기수들에게 시사지 보낼 후원자 모임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 3면 ·제네바 소식 ⑦-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씨 인터뷰
·'민간단체 보고서' 아동의 권리 보장 제기될 것

제362호(95.3.16, 목) / 165

- 1면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의 주체선언-16개 단체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경기대생들 구속자 석방 요구 서울시경 항의시위
- 2면 ·<해설>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제363호(95.3.17, 금) / 167

- 1면 ·문민정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금호재개발지구 철거민 고공농성중 박균백씨 16일 분신
·노점상·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 전국노점상연합회 집회
·휴업급여지급 둘러싸고 마찰 예상,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조작간첩피해자 구제 특별법 요구, 천주교인권위
- 2면 ·방위병 변사체 발견 의혹 증폭
·대전보건전문대 전학생회장 국가보안법 구속
·문국진씨 선고 4월6일
·불교인권위, 장기수 장례식 재야인사 구속 비난 성명

제364호(95.3.18, 토) / 169

- 1면 ·부산대에 이어 경기대도 「자주대오」 사건, 경찰·기무사 수사발표
·AI, 기세문·이경률씨 무조건 석방 촉구
·광주 구속수사·재판 여전-94년 집행유예 67.5%
- 2면 ·제네바 소식 ⑧ 제51차 유엔인권위 모니터/5
·제51차 유엔인권위 막 내려
·인권간행물

제365호(95.3.21, 화) / 171

- 1면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 '명동성당 농성' 약속 안 지켜져 부산서 탈출
·<현장스케치> 세계인권사진전
- 2면 ·금호지구 철거민 침묵시위, '세계인권사진전'서 직접 인권탄압 현실 고발
·장애인 복지 발전 추구 공동대책협의회기구 구성
·주간인권호름(95년 3월13일-19일)

제366호(95.3.22, 수) / 173

- 1면 ·분신 장애인노점상 최정환씨 운명, 장례위원회 25일 빈민장으로 치르기로
·피난처 유린 분노 지방씨 석방 요구, 외국인 연수생 공대위

·동의대 구속자 석방 기도회 갖기로, 30일 고난모임

·<인권어록>-종전 50년과 해방 50년의 차이

- 2면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구속자 석방 요구, 국제엠네스티 긴급구명활동 한달째 계속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ILO 제29조 조약(강제노동금지조약) 제 11조

제367호(95.3.23, 목) / 175

- 1면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총장 이상우씨 재판에서 증언
·자수간첩 박소형씨의 안기부 94년 9월12일 진술조서 내용
- 2면 ·국제엠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 전기협외장 서선원씨 석방 촉구
·억울한 옥살이 김기웅씨 손배청구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채불 가장 큰 문제-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서초구청장 구속 촉구, 불교인권위원회
·보상특별법 제정 촉구, 정대협 158차 수요시위

제368호(95.3.24, 금) / 177

- 1면 ·박총장 발언, 제2공안정국의 전주곡인가, 법정증인에 이어 한병훈과 기자회견
·학문의 자유 또 다시 구속, 경찰청 보안국, 방송통신대 역사학강사 김무용씨 구속
- 2면 ·서강대 박홍 총장 법정증언 증언록(요지)

제369호(95.3.25, 토) / 179

- 1면 ·강제철거·노점단속 강력규탄·분신 책임자 처벌등 요구, 오늘 최정환씨 장례식
·빨치산 기행-고무찬양, 김무용씨등 구속돼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씨 항소심
- 2면 ·제네바 소식⑨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제370호(95.3.28, 화) / 181

- 1면 ·면죄부-헌법재판소, 황대권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경찰 시신탈취 영결식 못한 채 안장, 분신 최정환씨 장례식
- 2면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집회등 계속
·'95 사회개혁투쟁 전개, 민주노총 준비위
·합동추모제 6월3일, 추사연대회의 총회

제371호(95.3.29, 수) / 183

- 1면 ·평화·인권·민주주의 아태지역 네트워크 결성, 유엔스코 한국위 3월29일-31일까지 창립회의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해-ILO 94년 연감
·의문사 진상규명 다짐, 김용갑씨 5주기 추모제
·<인권어록>-진정한 삶의 질은?/간첩이 자유로운 나라
- 2면 ·<자료> 대학강사 노조 김무용씨 구속 관련 성명서
·통일염원 미사 시작,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협 성명 발표
·인권유린 설명회 개최,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제372호(95.3.30, 목) / 185

- 1면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경찰관이 성폭행”, 경찰청 진상조사 착수
- 2면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김무용씨 석방·국보법 철폐 요구, 역사문제연구소등 성명 발표
-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 항의전화·집회 전개, 외국인노동자공대위

제373호(95.3.30, 수) / 187

- 1면 ·의혹 깊어지는 자수간첩 한병훈의 ‘정체’, 안기부 프락치일 가능성도 제기돼
- 경기대자주대오 조작돼, 경기남부연합 100인 입장
- 2면 ·<국제인권소식> 사회개발정상회의 NGO 포럼, 인간중심의 사회개발 실패

제374호(95.4.1, 토) / 191

- 1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활동 위축, 민주노총 조직적 대응 모색
- 민족회의등 8·15 50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 제안
- 전국연합 정책토론회, 한반도평화협정 제기
- 한일인권포럼 열려
- 2·3면 ·「인권하루소식」 3월분 목차(352호-373호)

제375호(95.4.4, 화) / 194

- 1면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상대로 손해소송제기
- 이상우씨 2년6월 선고
- 노점상연합회 간부 최정환씨 장례로 소환장
- 2면 ·4·3항쟁 위령제 갖고 진상규명 다짐
- 이상우씨 사건의 문제점
- 주간인권호름(95년 3월27일-4월2일)

제376호(95.4.6, 목) / 196

- 1면 ·5·18묘역 국립묘지 승격·최규하 전대통령 증언촉구
- 학단협, 김무용씨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 공동육아연구회, 공동육아현장학교 진행
- 문국진씨 1심 선고 예정
- 2면 ·4일은 정신건강의 날, 정신질환자의 문제공유
- 김상진열사 20주기
- 한국여성의 전화 제24기 상담원교육
- <독자투고> 박근혜 사건으로본 이땅의 철거문화(고상만, 전국연합 인권위)

제377호(95.4.7, 금) / 198

- 1면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선고, 이창복씨 석방
- 유엔인권위 모니터활동 이성훈씨 귀국
- 한국 제조업 노동시간 주48.9시간, 66개 국가중 7위-ILO발표
- 2면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사카에서 개최, 국보법 철폐결의
- <인터뷰> 제일한국인정치범 손유형씨 부인 부신화씨

제378호(95.4.8, 토) / 200

- 1면 ·민주세력 탄압중지·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촉구, 광주연합 성명 발표
- 부산고문사건 TV 방영,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장애로 인해 집중적인 차별에 시달려, 여성장애인 공청회

- 2면 ·<고베 대지진 현장을 돌아보고> 복구정책에 민족적 차별은 있다
- 인권간행물

제379호(95.4.11, 화) / 202

- 1면 ·노동부 94년 산재율 발표, 중대재해를 심각,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 21.1% 늘어
- 민정련 울산지부 5명 국보법 위반 구속
- 경비교도대원 김성철씨 구타호소, 자살
- 인혁당 20주기 추모제 열려
- 2면 ·<자료> 이창복씨 국보법 위반무죄 판결중 제7조에 대한 법원판단 부분
- 주간인권호름(95년 4월3일-9일)

제380호(95.4.12, 수) / 204

- 1면 ·장애인 10% 공천, 비례대표제 참여 촉구
- 박근혜씨 치료보장등 용역회사와 합의, 금호지구철거대책위
- 성폭력상담소 94년 상담통계 발표, 어린이 성폭력피해 심각
- 인권어록
- 2면 ·김상진열사 20주기 출판기념회 열려
- 민정련 정치적 탄압중지 발표
- <현장스케치> 경비교도대원 김성철씨의 죽음

제381호(95.4.13, 목) / 206

- 1면 ·조선노협 상경투쟁, 산재 직업병예방 촉구
- 노동부 94년 산재통계 ILO에 허위보고
- 지자체 후보공천 신청 재야단체 실무자 구속
- 한국중대재해를 세계 4위, 『노동통계연감 1994』
- 2면 ·전국연합등 32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선거법 87조 폐지요구
- 언론연구원 교육, 언론의 인권침해 강의
- 북한의 비전향장기수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

제382호(95.4.14, 금) / 208

- 1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정보통신 검열 시작
- 제일한국인단체, 전후보상·명예회복 촉구
-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17·32조
- 2면 ·김성철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본 경교대

제383호(95.4.15, 토) / 210

- 1면 ·빈민대회, 용역단속방 해체·강제철거 중단등 촉구
- 여성의 전화, 여성상담사례집 펴내
- 우조교사건 재판부에 편지보내기 운동
- 장애아동과 어깨동무, 장애인의 날 행사
- 2면 ·김대중씨와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 해방 50주년 맞아 양심수석방 노력 약속
- 광주전남연합등 성명, 재야회원 실행선고 규탄
- 대한변협,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 인권간행물

제384호(95.4.18, 화) / 212

- 1면 ·해고자등 1천5백명 집회, '제3자개입금지 어기기' 집단적 결의
- 2면 <현장스케치> 4월혁명전시회 '껌데기는 가라'
 - 장기수 강철순씨 운명
 - 이부영의원 재판연기
 - 일본군 위안부 영화 시사회
 - 주간인권호름(95년 4월10일-16일)

제385호(95.4.19, 수) / 214

- 1면 ·유아 9백71명중 68명 학대·방임당해, 아동학대에방협회
 - 18일 비전향장기수 송환호소, 김인서씨등 기자회견
 - 부산대 자주대오사건 3명 집행유예
 - 인권어록
- 2면 ·5월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최초 방한
 - 해고노동자 전경에게 폭행 7명 병원후송
 - 참여연대 1차 국제포럼
 - 제6회 4월혁명상 윤상원·신장균씨 수상

제386호(95.4.20, 목) / 216

- 1면 ·경찰, 새벽 병원난입, 부상 해고노동자 강제연행
 - 불교인권위 승려인권문제연구소 발기
 - 김재오씨등 필리핀방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위해
- 2면 ·북경여성대회 참가신청 이번주 마감
 - 장기수 고강철순씨 장례
 - <독자투고> 일본군 종군위안부 기록영화 '낮은 목소리'(최옥순 수녀)
 - 여성장애인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 북경여성대회 준비 박차

제387호(95.4.21, 금) / 218

- 1면 ·경찰, 새벽 병원난입, 노동자 강제연행
 - 재판부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재판 미뤄
- 2면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발표
 - 행사안내, 동정

제388호(95.4.22, 토) / 220

- 1면 ·해고노동자 구속연행 항의집회, 총 11명 구속
 -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 국제 엠네스티 뉴스, 김삼석씨 석방촉구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호 출판
- 2면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김기중변호사)
 - 인권간행물

제389호(95.4.25, 화) / 222

- 1면 ·파출소폭행 사과요구 분신, 시민중태
 - 시민 이형기씨 진술내용
 - 안산우신공업 파업에 노조파괴전담반 동원

- 2면 ·민주노총 해고자특위, 무기한 단식농성
 - 성폭력위기센터 개소 4주년
 - 주간인권호름(95년 4월 17일-23일)

제390호(95.4.23, 수) / 224

- 1면 ·민간단체, 유엔 사회권조약 보고서 작성완료, 회의 참석
 - 안산경찰서 "이형기씨 폭행한 적 없다" 변명, 안산지역단체 공동대책 모색
- 2면 ·안산 우신공업 노조 5명 구속, 노조파괴반 3월부터 합숙훈련
 - 민주노총 경찰책임자처벌 요구
 - '전태일의 밤' 행사
 - <현장스케치> 경찰폭행에 항의 분신한 이형기씨 모습

제391호(95.4.24, 목) / 226

- 1면 <특집>포천 주민들의 병원적출물 소각장 반대싸움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
- 2면 ·서울 봉천동, 여성철거민 철거반원에 성폭행 당해
 - 이형기씨 국립의료원 입원
 - 성희롱추방 거리 캠페인

제392호(95.4.25, 금) / 228

- 1면 ·경찰, 봉천동 철거폭력 수사되지 않다
 - 성희롱 항소심 공정판결촉구 선전전
- 2면 ·민주노총, 노동절 맞아 민주노총 원년 선포
 - 민주노총 준비위 해고자폭행사태 설명회
 - 불교인권위등 9개단체 양심수 대사면 촉구
 - 민가협 84차 목요집회
 - 포천소각장 회사측 법정대리인 사임 밝혀져
 - 행사안내

제393호(95.4.26, 토) / 230

- 1면 ·경찰 화장 지워진 문민의 가증스런 얼굴, 공대위 해고자 폭행·사당의원 난입 강력 대응키로
 - 안기부, 박창희 교수 구속,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 사회권위원회 제12차회기 민간단체 대표 출국
 - 정부안전사고대책 질타, 전국연합 대구참사 논평
- 2-3면 <인권하루소식> 95년 4월분 총목차(374-393호)

제394호(95.5.2, 화) / 235

- 1면 '노동악법 어기기'와 '사회개혁' 투쟁으로 민주노총 건설, 1일 수도권 노동자대회
 - 전근대적 노동정책 철회, 전국연합·AI 한국지부 노동절 성명
 - 조선대 교지편집장 구속, 전남대생도 연행조사중
- 2면 ·외국인노동자 한마당 열려,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 국보법·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
 - 주간인권호름(95년 4월24일-30일)

제395호(95.5.3, 수) / 237

- 1면 ·해고자복직 소비자가 나섰다, LG 그룹 도덕성 회복 촉구하는 소비자들 결의대회 가져

- 감옥창살마저 막아버린 영등포교도소, 민가협 법무부 항의방문
- 2면 ·어머니 상습폭력 보다 못한 살인, 여성의 전화 전경진씨 구명운동 펼치기로
- 5·3 동의대 사건 잊으셨습니까? 고난모임,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요구

제396호(95.5.4, 목) / 239

- 1면 ·노동운동 전면적인 탄압에 공동대처, 경기남부지역 80여 노조·노동단체 제3차 개입선언
- 5·3동의대 사건 집회 열려
- 어린이성폭력예방비디오 홍보, 한국성폭력상담소
-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19일 강연, 정대협·대한변협
- 2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①> 어린이날에 생각하는 아이들의 권리

제397호(95.5.6, 토) / 241

- 1면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4천만원 지급하라"
- 또 하나의 부끄러운 방송사, 대구가스폭발사고 보도
- 2면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 행사
- 「아동권리연대회의」 어린이 권리 홍보물 배포
- 여연, 봉천동 철거 성폭력책임자 처벌 요구 성명
- <독자기고> 티벳의 노승려·세계화·인권 (혜진스님)

제398호(95.5.9, 화) / 243

- 1면 ·광주학살 책임자 '기소촉구'운동 펼쳐, 광주민중항쟁 15주년 앞두고 진상규명요구
- '이랜드 신화'에 가려진 노조탄압, 이랜드그룹 부당해고 노동자 항의농성 43일째
- 2면 ·노태훈씨 성공회대학 '인권과 국제인권단체' 강의
- <인터뷰> 유엔 아프카니스탄 특별보고관 백충현교수
- 특별보고관이란?
- 주간인권호름(95년 5월1일-7일)

제399호(95.5.10, 수) / 245

- 1면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씨 방한 국보법등 조사활동 계획
- 회사측의 손해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해소송 공대위
- 두밀리분교 폐교철회선고 또 연기
- 인권어록
- 2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②> 어린이의 생명·생존·발전권
- <해설> 유엔인권위 활동의 꽃- 특별보고관

제400호(95.5.11, 목) / 247

- 1면 ·철거폭력 회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봉천동 성폭력 직준개발, 16개 지역에서 철거 말아
- 2면 ·<국제인권소식> 태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행사 열려
- 국제인권단체,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반군에 협상촉구
- 김무용씨 재조사 촉구 프랑스, ARTICLE 19
- 일본 외국인 119 네트워크, 외국인 노동자에게 인도적인 대우 요청
- 대검 수배자 검거령 비난, 민주노총 준비위
- 피터슨목사 증언 예정, 전국연합 집회에서

인권하루소식

94년 12월

(제301호 - 제316호)

● 국제인권소식 ●

태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행사 열려

태국의 '92년 5월 민주화 운동희생자가족위원회'(The Relatives of Heroes in May 1992 Democratic Movement)는 라지담네르 피의 5월학살(Bloody May Massacre on Rajdamnern, 1992)의 희생자를 기념하기 위해 14일-20일까지 국제적인 추모집회와 워크샵을 갖는다.

희생자가족위원회는 동티모르, 필리핀, 미얀마, 타이완, 아르헨티나 등에서 인권운동가를 초청하여 각국의 민주화 운동 사례와 경험을 서로 나누고 전시회, 영화상영, 추모식, 워크샵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라지담네르 피의 5월학살은 92년 태국군부 정권 압제에 항거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요구하며 투쟁하다 1백여명의 국민들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스리랑카 협상촉구 국제인권단체

최근 스리랑카 북부지역에서 정부와 타밀반란군(타밀엘람해방호랑이, LTTE) 사이에 일어난 전투로 민간인과 군인등 77명이 죽은 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성, 법, 개발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포럼」(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은 4월 28일 전세계 인권단체에게 스리랑카 대통령과 타밀반란군 지도자가 종전협상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낼 것을 촉구했

다. 스리랑카 정부는 독립을 요구하는 2백50만명의 타밀 소수족과 지난 83년부터 내전을 계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군인, 민간인등 3만4천여명 이상이 죽었고 산업 시설이 파괴되는 등 물적 피해를 입었다.
<편지보낼 곳>
Her Excellency
President
Kumeneraranga
Presidential Secretariat
Colombo 1
Sri Lanka

V. Prabhakaran
LTTE
c/o ICRC
Colombo 5
Sri Lanka

김무용씨 재조사 촉구 프랑스, ARTICLE 19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적인 인권단체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은 4월2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어 김무용(34,방통대 역사학 강사)씨 연행에 항의하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ARTICLE 19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19조에 규정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 유엔경제사회 이사회의 협의자격을 갖춘 국제민간단체이다)

아티클나인틴은 "자유로운 사회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논쟁거리가 되는 학문적인 연구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는 한국이 91년 비준한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19조(표현의 자유)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시민·정치적 권

리를 90년에 비준한 한국정부의 책무와 국가보안법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지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용씨는 3월 23일 '한국현대사와 빨치산의 활동'이란 제목의 글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또한 김씨는 10일 재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 받았다. 선고공판은 5월 30일 10시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인도적인 대우 요청 일본, 외국인 119네트워크

일본의 「외국인 119네트워크」, 「가나가와시티유니온」등 19개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은 10일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서를 보냈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은 인도적·도덕적으로 인간다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정부는 지난 1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농성을 해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외국인연수생 제도개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지난 3월20일 강제추방된 네팔인 연수생 이반버가사이씨에 대하여 공개사과할 것 △연수생에 대한 노동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연수생에 대한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때까지 한국정부에 항의방문, 항의서한 전달등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수배자 검거령 비난 민주노총 준비위

지난 8일 대검 공안부가 권영길씨등 노동계 9명에 내린 특별검거령에 대해 「전국민주노총준비위원회」(

공동대표 권영길등 3명, 민주노총(준)는 9일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준)은 "검찰이 구체적 증거 제시없이 민주노총 준비위가 올해 임투를 지자제선거와 연계시킬 움직임에 보인다면 기존 수배자에 대한 특별검거령을 내린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적인 수배 해제와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비롯한 노동악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별검거령이 내린 9명은 이미 제3자 개입 및 불법노조 결성등의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돼 검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수배자 명단: △권영길(민주노총 준비위 공동대표) △양규현(·) △단병호(전 노협 전위원장) △이상현(·쟁의국장) △이수원(현 총련 전사무차장) △임성규(전지협 정책기획실장) △구장희(현대중공업노조 기획실장) △박철모(·편집실장) △김석문(·대의원)

피터슨 목사 증언 예정 전국연합 집회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0일 광주항쟁 15주년을 맞아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사법부가 광주항쟁에 대한 공소시효를 8월16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살 책임자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불행한 역사의 악순환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연합의 주최로 13일 열릴 「5.18 민주항쟁 15주년 기념 및 학살책임자 기소촉구 국민대회」에서 80년 당시 군 헬기가 광주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했다는 일지와 사진등의 자료를 공개한 피터슨목사가 현장증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IV 색인

(제301호 - 제400호)

부록:『<인권하루소식> 합본 4호』 색인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 합본4호(301-400호)를 펴내면서 게재되었던 기사를 주제별로 색인작업을 하였습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색인작업이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나다순).

<색인순서>

- 284 /경찰폭력, 안기부 - <김기웅 순경사건>
 284 /고문, 가혹수사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의문사> <강주영양 사건>
 285 /교육 - <두밀리분교> <전교조>
 285 /국가보안법 -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구국전위사건> <김삼석씨 남매사건>
 <민정련사건> <샘사건> <황석영씨 방북사건> <백홍용씨 사건>
 288 /국제 - <국제사면위원회> <동티모르> <북경여성대회---->여성> <사회발전정상회의> <아
 태지역인권워크샵> <오월광장어머니회---->불처벌> <여성일반> <유엔관련기구> <유엔인권위원
 회><인권고등판무관>
 290 /노동 - <산업재해> <외국인노동자> <원진레이온> <전해투(민주노총전해특위)> <지하철, 철
 도파업> <민주노총준비위>
 292 /노인
 292 /도시빈민 - <노점상> <철거민>
 292 /단체탐방
 293 /미군범죄 - <설은주씨등 세모녀 폭행사건>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293 /법제 - <긴급구속> <사형제도> <손해배상청구소송> <헌법재판소>
 294 /북한인권
 294 /불처벌 - <12·12> <5·18> <삼청교육대> <정신대> <정대협---->여성> <조작간첩사건(백
 홍용씨 사건---->국가보안법)>
 295 /사회보장권
 296 /사회단체 - <고난모임> <전국연합>
 296 /아동 - <아동권리조약>
 297 /양심수, 장기수 - <조작간첩사건---->불처벌>
 297 /여성 - <가정폭력> <북경여성대회> <서울대 우조교사건> <성폭력, 성희롱 일반> <성폭력
 상담소> <여성민우회> <여성의 전화> <정대협>
 299 /인권교육
 299 /인권단체 - <교회협인권위> <대한변협>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고문> <민가협>
 <민변> <불교인권위> <서울지방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유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협> <천주교인권위>
 301 /인권어록
 301 /인권일반 - <언론의 인권침해> <환경>
 303 /장애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취업>
 304 /행형실태

<법령>

-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특집① "인권운동의 화두"(김형태 변호사)/94.12.10 2 305 / 32 ; (94년 12월10일자-305호- 기사, 2면, 『<인권하루소식> 합본 IV』의 32쪽)
-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4년 인권 10대 뉴스/94.12.27 2,3,4 316 / 56 ; (94년 12월27일자-316호- 기사, 2,3,4면, 『<인권하루소식> 합본 IV』의 56쪽)

경찰폭력, 안기부

- 경찰비리 폭로경찰관 보복구속 의혹, 김석원 전 경장 구속/94.12.15 1 308 / 38
- 최태호이교대책위, 진상규명 진정서 제출 위해 상경/94.12.20 2 311 / 45
- 서울민사지법 '피의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판결/94.12.27 1 316 / 55
- 최이교사망사건 불기소에 대책위등 항소/95.1.5 2 317 / 62
- 경찰, 노씨 연행은 '임의동행' 주장-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등 혐의 손배소송/95.2.9 1 338 / 109
-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이창복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95.3.30 1 372 / 185
- "경찰관이 성폭행"-경찰청 진상조사 착수/95.3.30 1 372 / 185
- 경찰, 새벽 병원난입, 노동자 강제연행/95.4.21 1 387 / 218

<김기웅 순경 사건>

- 억울한 옥살이 김기웅씨 손배청구/95.3.23 2 367 / 176

고문, 가혹수사

- 고문방지협약 해 넘겨, 국회 외통위에서 핵심조항 유보이유로 야당반대/94.12.8 1 303 / 27
- AI 한국지부 '국보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조약 유보없이 가입'등 촉구/94.12.10 1 305 / 31
- AI한국지부 고문방지조약 유보조항 조속 가입등 촉구/95.1.6 2 318 / 64
- 고문방지협약 청원권 유보철회 요구, 인권협 성명발표/95.1.10 1 320 / 67
- 정부 9일 유엔에 고문방지협약 가입서 기탁/95.1.10 1 320 / 67
- 박종철열사 8주기/95.1.14 1 324 / 74
- 고 박종철열사 부친 박정기씨 인터뷰/95.1.14 2 324 / 75
- 고 박종철열사 8주기 추모 및 기념강연 안상수 변호사 강연요지(발췌)/95.1.18 2 326 / 80
- AI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가혹행위 재조사 요구/95.1.26 2 332 / 93
- 오늘 고문방지조약 발효-고문피해자들 고통의 삶 계속돼/95.2.8 1 337 / 105
-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대한변협 진상조사 촉구/95.2.8 2 337 / 107
- 경비교도대원 김성철씨 구타호소, 자살/95.4.11 1 379 / 202
- <현장스캐치> 경비교도대원 김성철씨의 죽음/95.4.12 2 380 / 205
- 김성철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본 경교대/95.4.14 2 382 / 209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 문국진씨 재입원/95.2.7 1 336 / 104
- 문국진씨 선고 4월6일/95.3.17 2 363 / 168
- 문국진씨 1심 선고 예정/95.4.6 1 376 / 196
- 재판부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재판 미뤄/95.4.21 1 387 / 218
- 서울민사지법 "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4천만원 지급하라"/95.5.6 1 397 / 241

<부산 강주영양 사건>

-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94.12.23 1 314 / 52
-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94.12.27 1 316 / 55
- 부산지법 특수부 고문경관조사 시작/95.1.6 2 318 / 64
- 부산 유괴사건 현장검증 범행 불가능 장소 판명/95.1.13 1 323 / 72
- 부산 유괴범 살해사건 고문 조작, 남씨 범행시각에 친구와 통화 밝혀져/95.1.20 1 328 / 84
- 고문조작의혹 부산국교생 유괴사건 피의자에 사형구형/95.1.24 1 330 / 88
- 변호인단 원피고인 알리바이 입증 새 증거 제출/95.2.14 1 341 / 114
-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원피고인등 3인은 무죄, 이씨에겐 사형 선고/95.2.25 1 350 / 135
- 문제인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인터뷰/95.2.25 1 350 / 135
- 부산고문사건 TV 방영, sbs 「그것이...」/95.4.8 1 378 / 200

<의문사>

- 최태호이교대책위, 진상규명 진정서 제출 위해 상경/94.12.20 2 311 / 45
- 최이교사망사건 불기소에 대책위등 항소/95.1.5 2 317 / 62
- 의문사 청원심사소위 구성키로, 국회법사위/95.1.24 2 330 / 89
- 방위병 변사체 발견 의혹증폭/95.3.17 2 363 / 168
- 의문사 진상규명 다짐-김용갑씨 5주기 추모제/95.3.29 1 371 / 183

교육

<두밀리분교>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주요조항/94.12.17 1 310 / 42
- 두밀분교 6학년생 두명 중학배정 반려 법적 근거없다/94.12.17 1 310 / 42
- '94 인권10대 뉴스-가평 두밀분교 폐교, 주민들 폐교철회 첫 소송/94.12.27 4 316 / 58
- 두밀학교 살리기 운동 토론회/95.1.20 2 328 / 85
- 두밀분교생 15명 유급위기/95.2.15 1 342 / 116
- 두밀분교 소송 연기/95.2.22 1 347 / 128
- 두밀분교생 95년 새 학기 등교결정-"폐교철회소송 끝까지 하겠다"/95.2.23 2 348 / 132
- 두밀분교 포기할 수 없다-학부모, 경기도 교육감에 입장 전달/95.3.3 1 353 / 146
- 두밀리분교 폐교철회선고 또 연기/95.5.10 1 399 / 245

<전교조>

- 여성단체등 용모제한철폐 촉구집회/94.12.14 2 307 / 37
- 여사원모집 채용시 용모제한 고소기소 촉구대회/94.12.16 1 309 / 40
- 전교조 새위원장에 정혜숙 현위원장 선출/94.12.20 2 311 / 45

국가보안법

- 기사연 통일인식 조사, 국보법 독소조항 개정 또는 법적용 신중 83.1%/94.12.7 1 302 / 25
- AI 한국지부 '국보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조약 유보없이 가입'등 촉구/94.12.10 1 305 / 31

- 황관중씨, 고교생 의식화교육협의 국보법 위반 구속/94.12.23 1 314 / 52
- 박홍 총장 주사과 발언과동/94.12.27 2 316 / 56
- 홀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 못할 국보법 수감자 김연인씨/95.1.11 2 321 / 70
-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부산지법 제3형사부/95.1.19 1 327 / 81
-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논평, 불교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95.1.19 1 327 / 81
- 부산지법이 제출한 국보법 7조 (1) (2) (3)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95.1.19 3 327 / 83
- 경찰,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발표/95.2.16 1 343 / 119
- 미 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 ①국보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95.2.16 2,3 343 / 120
- 부산대 「자주대오」 공대위 구성키로/95.2.17 1 344 / 122
- 남총련 자체 집계-2월 현재 구속 52명, 수배 11명/95.2.17 2 344 / 123
- AI 「자주대오」 사건 긴급행동 호소, 학생, 재야운동단체 대책 마련에 분주/95.2.18 1 345 / 124
- 국가보안법 철폐등 결의-전국연합, 대의원대회/95.2.21 1 346 / 126
-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수배자 연행돼/95.2.21 1 346 / 126
-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51차 유엔인권위 3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95.2.22 2,3 347 / 129
-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 아니다-정부대표, 유엔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95.2.24 1 349 / 133
-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95.2.24 1 349 / 133
- 「국경선 없는 기자들」 최진섭씨 석방 촉구/95.3.3 1 353 / 147
- AI 전세계 회원들 긴급행동 시작-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국제적인 처우 요구/95.3.7 1 355 / 150
- 북한 장학생 발언 박홍 총장 증인으로 채택-이상우씨 재판/95.3.9 1 357 / 154
-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1심재판결과 수사발표와 많은 차이/95.3.11 1 359 / 158
- 분단50주년 국보법 철폐 최대 과제로-민가협 10차 총회 가져/95.3.11 1 359 / 158
- 박홍 총장 법정에서 북한 장학생 관련 증언 용의/95.3.11 2 359 / 159
- 비전향장기수 장례 파문 확산 조짐-한국전 관련단체 협박성 파상공세 전개/95.3.14 1 360 / 160
- 서울경찰청, 경기대 학생회간부들 대거연행/95.3.15 1 361 / 162
- 고 윤기남씨 장례 관련 12명에 출두요구서/95.3.15 2 361 / 163
- 경기대생들 구속자 석방 요구 서울시경 항의시위/95.3.16 1 362 / 165
- 대전보건전문대 전학생회장 국가보안법 구속/95.3.17 2 363 / 168
- 부산대에 이어 경기대도 「자주대오」 사건-경찰, 기무사 수사발표/95.3.18 1 364 / 169
-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구속자 석방 요구-AI 긴급구명활동 한달째 계속/95.3.22 2 366 / 174
-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박홍 총장 이상우씨 재판에서 증언/95.3.23 1 367 / 175
- 자수간첩 박소형씨의 안기부 94년 9월12일 진술조서 내용/95.3.23 1 367 / 175
- 학문의 자유 또 다시 구속-경찰청 보안국, 방송통신대 역사학강사 김무용씨 구속/95.3.24 1 368 / 177
- 서강대 박홍 총장 법정증언 증언록(요지)/95.3.24 2 368 / 178
- 박홍총장 발언, 제2공안정국의 전주곡인가-법정증언에 이어 한병훈과 기자회견/95.3.24 1 368 / 177
-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이창복씨 항소심/95.3.25 1 369 / 179
- 빨치산 기행-고무찬양-김무용씨등 구속/95.3.25 1 369 / 179
- <자료> 대학강사 노조 김무용씨 구속 관련 성명서/95.3.29 2 371 / 184
- 인권유린 설명회 개최-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95.3.29 2 371 / 184
- 김무용씨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역사 3단체, 성명 발표/95.3.30 2 372 / 186
- 경기대 자주대오 조작돼-경기남부연합 100인 입장/95.3.31 1 373 / 187
- 자수간첩 한병훈의 ‘정체’-안기부 프락치일 가능성도 제기돼/95.3.31 1 373 / 187
- 이상우씨 2년6월 선고/95.4.4 1 375 / 194
-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상대로 손배소송제기/95.4.4 1 375 / 194
- 이상우씨 사건의 문제점/95.4.4 2 375 / 195

- 학단협 김무용씨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95.4.6 1 376 / 196
-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선고, 이창복씨 석방/95.4.7 1 377 / 198
-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사카에서 개최, 국보법 철폐결의/95.4.7 2 377 / 199
- <자료>-이창복씨 국보법 위반무죄 판결중 제7조에 대한 법원판단 부분/95.4.11 2 379 / 203
- 이부영의원 재판연기/95.4.18 2 384 / 213
- 부산대 자주대오사건 3명 집행유예/95.4.19 1 385 / 214
-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95.4.22 1 388 / 220
- 안기부, 박창희 교수 구속-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95.4.29 1 393 / 230
- 국보법·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95.5.2 2 394 / 235
- 조선대 교지편집장 구속, 전남대생도 연행조사중/95.5.2 1 394 / 235
-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씨 국보법등 조사활동/95.5.10 1 399 / 245
- 김무용씨 재조사 촉구 프랑스, ARTICLE 19/95.5.11 2 400 / 248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 '94 인권 10대 뉴스-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94.12.27 3 312 / 57
- 경상대 장상환교수등 복직/95.1.7 1 319 / 65

<구국전위사건>

- 안기부 반국가단체 성원회합 인지하고도 1년간 방치-안재구씨 항소심 2차 공판/95.3.10 1 358 / 156

<김삼석씨 남매사건>

- '94 인권10대 뉴스-안기부 프락치 배인호 양심선언/94.12.27 2 316 / 56
- 백홍용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시인/95.1.11 1 321 / 69
- 남매간첩단 사건 전면재수사, 국조권발동 요구 안기부앞 규탄시위/95.1.13 2 323 / 73
- 안기부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대한변협 김남매진상조사 결과발표/95.1.27 3 333 / 94
-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95.1.27 2 333 / 95
- 김삼석 남매간첩사건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 민가협 목요집회/95.2.17 1 344 / 122
- AI 뉴스, 김삼석씨 석방촉구/95.4.22 1 388 / 220

<민정련사건>

- 민정련 울산지부 5명 국보법 위반 구속/95.4.11 1 379 / 202
- 민정련 정치적 탄압중지 발표/95.4.12 2 380 / 204

<백홍용씨사건>

- '94 인권10대 뉴스-안기부 프락치 배인호 양심선언/94.12.27 2 316 / 56
- 백홍용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시인/95.1.11 1 321 / 69
- 남매간첩단 사건 전면재수사, 국조권발동 요구 안기부앞 규탄시위/95.1.13 2 323 / 73
- 안기부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대한변협 김남매진상조사 결과발표/95.1.27 1 333 / 94
-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95.1.27 2 333 / 95

<샘사건>

- 「샘」사건 고영국씨 5차 공판, 증인신문 혐의사실 부인/94.12.13 1 306 / 34
- 「샘」사건 보고서 발행/94.12.22 1 313 / 49
- 「샘」사건 재판, 증인불참으로 연기/94.12.24 1 315 / 53

- 고교 재학생, 졸업생 「샘」 「희망」등 송년행사 준비/94.12.24 2 315 / 54
- 재판부 증인재구인 예정 「샘」사건 재판연기/95.1.14 1 324 / 74
-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95.2.4 1 335 / 101
- 「샘」 회장 집행유예/95.2.17 1 344 / 122
- 「샘」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95.2.23 1 348 / 131
- 「샘」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씨 인터뷰/95.2.23 2 348 / 132
- 「샘」 사건 지금/95.2.23 2 348 / 132

<황석영씨 방북사건>

- 황석영씨등 '자의적 구금' 결정, 정부 사실 숨겨/95.1.6 1 318 / 63
- 황석영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 결정(발체)/95.1.7 2 319 / 66
- 황석영, 이근화·최진섭씨사건 개요/95.1.7 2 319 / 66

국제

- 천정배변호사, 아태민간단체 촉진협의회 참석, 2-3일 방콕/94.12.14 1 307 / 36
- 11월28-30일 타이에서 아시아 인권교육정보센터 워크숍 개최/94.12.14 2 307 / 37
- 필리핀서 아태지역 인권과 개발에 관한 사회활동가회의 개최 예정/94.12.24 2 315 / 54
- 아사히신문 네팔인 명동성당 농성 크게 보도/95.1.17 2 325 / 77
- '제1회 인권과 개발에 관한 아태지역 사회사업가 회의' 필리핀/95.2.10 2 339 / 111
- 국제법률가위원회 중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95.3.15 2 361 / 163
- 참여연대 1차 국제포럼/95.4.19 2 385 / 215
- 민간단체, 유엔 사회권조약 보고서 작성완료, 회의 참석/95.4.26 1 390 / 224
- <독자기고> 티벳의 노승려·세계화·인권 (혜진스님)/95.5.6 2 397 / 242
- 태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행사 열려/95.5.11 2 400 / 248
- 스리랑카 협상촉구 국제인권단체/95.5.11 2 400 / 248
- 외국인노동자에게 인도적인 대우 요청, 일본 외국인 119 네트워크/95.5.11. 2 399 / 248
- 김무용씨 재조사 촉구 프랑스, ARTICLE 19/95.5.11 2 400 / 248

<국제엠네스티(AI)>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국보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협약 유보없이 가입'등 촉구/94.12.10 1 305 / 31
- AI 유정식씨 검진 요구/94.12.24 2 315 / 54
- AI '북한인권보고서' 무단으로 베낀 한국정부, 보고서 회수등 약속/95.1.6 1 318 / 63
- AI한국지부 고문방지협약 유보조항 조속가입등 촉구/95.1.6 2 318 / 64
-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인 무차별구타 연행, AI 석방요구 운동펼쳐/95.1.13 2 323 / 73
- AI 한국지부 95년 사업계획 확정/95.1.24 2 330 / 89
- AI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가혹행위 재조사 요구/95.1.26 2 332 / 93
- AI, 정부에 석달윤씨 석방, 재조사 촉구 서한/95.2.15 1 342 / 116
- AI 「자주대오」 사건 긴급행동 호소, 학생, 재야운동단체 대책 마련에 분주/95.2.18 1 345 / 124
- AI 한국지부, 25일 사형제도 자료집 발행/95.2.23 1 348 / 131
- AI, 김대통령 유럽 순방에 인권문제 논의 촉구/95.3.3 1 354 / 148
- AI 전세계 회원들 긴급행동 시작-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국제적인 처우 요구/95.3.7 1 355 / 150
- AI 한국지부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서명부 전달/95.3.8 1 356 / 152
- 여성을 주제로 세계적으로 캠페인 펼쳐-AI/95.3.9 2 357 / 155

- 인권문제 이해증진 목적 사진전 열어-AI 한국지부/95.3.14 1 360 / 160
- AI, 기세문, 이경률씨 무조건 석방 촉구/95.3.18 1 364 / 169
- <현장스케치>-세계인권사진전/95.3.21 1 365 / 171
- 금호지구 칠거민 침묵시위-'세계인권사진전'서 직접 인권탄압 현실 고발/95.3.21 2 365 / 172
-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구속자 석방 요구-AI 긴급구명활동 한달째 계속/95.3.22 2 366 / 174
- AI,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전기협외장 서선원씨 석방 촉구/95.3.23 2 367 / 176
- AI 뉴스, 김삼석씨 석방촉구/95.4.22 1 388 / 220
- 전근대적 노동정책 철폐, 전국연합·AI 한국지부 노동절 성명/95.5.2 1 394 / 235

<동티모르>

- 동티모르 로케 로드리게스씨 6일 출국, 한국에 동티모르지원그룹 만들어지길 희망/94.12.6 2 301 / 23
- 동티모르지원시민모임, 외국인노동자피난처에서/94.12.15 2 308 / 38
-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인 무차별구타 연행, AI 석방요구 운동펼쳐/95.1.13 2 323 / 73
- AI 한국지부 95년 사업계획 확정/95.1.24 2 330 / 89
- AI 한국지부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서명부 전달/95.3.8 1 356 / 152
- 동티모르 관련 의장 성명서 채택-51차유엔인권위 5주간 회의 주요쟁점들-/95.3.8 2 356 / 153

<북경여성대회---->여성>

<사회발전정상회의>

- WSSD 제3차 준비회의 1월 뉴욕서 열려/95.2.10 2 339 / 111
- 한국형 경제개발, 제3세계 모범일 수 없다-제3차 인간사회발전포럼/95.2.25 1 / 135
- WSSD에 민간단체 참가, 한국상황 홍보/95.3.7 1 355 / 150
- 사회개발정상회의 NGO 포럼-인간중심의 사회개발 실패/95.3.31 2 373 / 188

<아태지역인권워크숍>

- WSCF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개최/95.1.26 2 332 / 93

<오월광장어머니회---->불처벌>

<여성일반>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10주년 기념 심포지움/94.12.15 2 308 / 39
- 아시아여성회의 내년 1월 인도에서 열려/94.12.24 2 315 / 54
- 북한 대표 불참한 채로 3차 아시아연대회의 개막/95.2.28 1 351 / 138
- 일본군 중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95.3.2 1 352 / 143
- 배상특별법 제정 촉구-아시아연대회의 폐막/95.3.2 1 352 / 143
- 아시아 5개국 여성이 함께 한 정대협 수요시위/95.3.2 1 352 / 143

<유엔인권기구>

- 유엔 인권관련 주요 회의 및 행사 일정/95.2.17 2 344 / 123
-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95.3.16 1 362 / 123
- ILO 제29조 조약(강제노동금지조약) 제 11조/95.3.22 2 366 / 174
-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95.3.22 2 366 / 174
-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해-ILO 94년 연감/95.3.29 1 371 / 183

- 한국 제조업노동시간 주48.9시간, 66개 국가중 7위-ILO발표/95.4.7 1 377 / 198
- 노동부 94년 산재통계 ILO에 허위보고/95.4.13 1 381 / 206

<유엔인권위원회>

- 유엔 자의적구금실무분과 황석영씨등 '자의적 구금' 결정/95.1.6. 2 319 / 63
- 황석영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 결정(발체)/95.1.7 2 319 / 66
- 황석영, 이근희·최진섭씨사건 개요/95.1.7 2 319 / 66
-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관?/95.1.7 2 319 / 66
- 정부 9일 유엔에 고문방지협약 가입서 기탁/95.1.10 1 320 / 67
-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단 4월경 한·일 방문/95.1.13 2 323 / 73
- 유엔51차 인권위 모니터 위해 출국, 이성훈씨 인권협대표로 참석/95.1.17 2 325 / 77
- <해설> 「인권운동가 지원실무분과관」관?/95.1.25 2 331 / 91
- 유엔 10차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 회의 열려/95.1.25 2 331 / 91
- 51차 유엔 인권위 개막-황석영씨등 자의적 구금, 정신대 문제 논의 예정/95.2.4 1 335 / 101
- 10문10답으로 알아보는 유엔 인권위원회/95.2.7 2 336 / 105
- 인권운동가 지원실무분과 10차 회의 종료/95.2.8 2 337 / 107
-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사무처장 티코노프씨 인터뷰/95.2.8 3 337 / 108
- 미국의 인종주의에 국제적 비난-51차 유엔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95.2.15 2,3 342 / 117
- 한국 '인권침해국'-유엔인권위 제51차 회의 3개 보고서에서 지적/95.2.22 1 347 / 128
-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51차 유엔인권위 3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95.2.22 2,3 347 / 129
- 정부, 손종규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국가안보 핑계로 인권유린하는 태도 여전/95.2.23 1 348 / 130
-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95.2.24 1 349 / 133
- 국보법 구속자 '양심수' 아니다-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95.2.24 1 349 / 133
-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유엔인권위 4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95.3.3 2 353 / 147
- 동티모르 관련 의장 성명서 채택-51차유엔인권위 5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95.3.8 2 356 / 153
-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씨 인터뷰/95.3.15 3 361 / 164
- 제51차 유엔인권위 막 내려/95.3.18 1 364 / 170
-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95.3.25 2 369 / 180
- 유엔인권위 모니터활동 이성훈씨 귀국/95.4.7 1 377 / 198
- 5월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최초 방한/95.4.19 2 385 / 215
-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17일 강연, 정대협·대한변협/95.5.4 1 396 / 239
- <해설> 특별보고관이란?/95.5.9 2 398 / 244
- <인터뷰> 유엔 아프카니스탄 특별보고관 백충현교수/95.5.9 2 398 / 244
-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씨 국보법등 조사활동/95.5.10 1 399 / 245
- <해설> 유엔인권위 활동의 꽃- 특별보고관/95.5.10 2 399 / 246

노동

- 노동자대회 참석이유로 취업연수생 자격 발탈/94.12.7 1 302 / 25
- 정부, 손종규씨 인권이사회 답변에서, 국가안보 핑계로 인권유린 태도 여전/95.2.23 1 348 / 131
- 부천 대흥기계 노조 파업 4일째, 민주노총준비위 연대투쟁 결의/95.2.16 1 343 / 119
-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95.3.16 1 362 / 165
-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해-ILO 94년 연감/95.3.29 1 371 / 183

- 한국 제조업노동시간 주48.9시간, 66개 국가중 7위-ILO발표/95.4.7 1 377 / 198
- 노동부 94년 중대재해를 심각,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 21.1% 늘어/95.4.11 1 379 / 202
- 노동부 94년 산재통계 ILO에 허위보고/95.4.13 1 381 / 206
- 안산우신공업 파업에 노조파괴전담반 동원/95.4.25 1 389 / 222
- 민주노총 경찰책임자처벌 요구/95.4.26 2 390 / 225
- '전태일의 밤' 행사/95.4.26 2 390 / 225
- 전근대적 노동정책 철회, 전국연합·AI 한국지부 노동절 성명/95.5.2 1 394 / 235
- 국보법·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범의 날 성명/95.5.2 2 394 / 235
- 해고자 복직 소비자가 요구, LG그룹 도덕성 회복 촉구 소비자들 결의대회/95.5.3 1 395 / 237
- 경기남부지역 80여 노조·노동단체 노동탄압에 제3차 개입선언/95.5.4 1 396 / 239
- '이랜드 신화'에 가려진 노조탄압, 이랜드그룹 부당해고노동자 농성 43일째/95.5.9 1 398 / 243

<산업재해>

- 과로사 상담센터 1주년 기념식, 세미나 가져, 과로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예방강조 /94.12.8 1 303 / 27
- 조선노협 상경투쟁, 산재 직업병예방 촉구/95.4.13 1 381 / 206
- 한국중대재해를 세계 4위-『노동통계연감 1994』/95.4.13 1 381 / 206

<외국인노동자>

- 서울지방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소/94.12.14 2 307 / 37
- 서울지방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엄/94.12.14 1 307 / 36
- 한국인 공장장 네팔여성노동자 강간/95.1.10 2 320 / 67
-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95.1.10 2 320 / 68
- 네팔노동자 성폭행한 공장장 긴급구속/95.1.12 1 322 / 71
- 외국인취업연수생 농성4일째, 공대위 구성 움직임/95.1.12 1 322 / 71
-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대위 발족/95.1.13 1 323 / 72
- 외국인노동자 농성장에 적힌 시/95.1.14 2 324 / 75
- 노동부 직원 외국인 노동자 농성장 방문/95.1.14 2 324 / 75
-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명동성당 농성 9일째/95.1.17 2 325 / 77
- 아사히신문 네팔인 명동성당 농성 크게 보도/95.1.17 2 325 / 77
- 불법채류자와 고용업체 단속강화, 중소기업협동중앙회/95.1.17 2 325 / 77
- 네팔노동자 농성해산/95.1.18 1 326 / 79
-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곰보얼굴에 화장 덧찍은 꼴"/95.1.19 2 327 / 82
- 외국인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일지, 상황(1월9~17일)/95.1.19 2 327 / 82
-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95.2.15 1 342 / 116
- 「외국인산업연수생공대위」 항위시위/95.2.22 1 347 / 128
- 탈출을 강요당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95.3.4 1 354 / 148
-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명동성당 농성' 약속 안 지켜져 부산서 탈출/95.3.21 1 365 / 171
-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채불 가장 큰 문제-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95.3.23 2 367 / 176
-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집회등 계속/95.3.28 2 370 / 182
- 피난처 유린 분노 지반씨 석방 요구-외국인 연수생 공대위/95.3.22 1 366 / 186
-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 항의전화, 집회 전개-외국인노동자공대위/95.3.30 2 372 / 186
- 김재오씨등 필리핀방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위해/95.4.20 1 386 / 216
- 외국인노동자 한마당 열려,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95.5.2 2 394 / 236
- 외국인노동자에게 인도적인 대우 요청, 일본 외국인 119 네트워크/95.5.10 2 399 / 248

<원진레이온>

·휴업급여지급 둘러싸고 마찰 예상-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95.3.17 1 363 / 167

<전해투(민주노총전해특위)>

- 조선노협 상경투쟁, 산재 직업병예방 촉구/95.4.13 1 381 / 206
- 해고자등 1천5백명 집회, '제3자개입금지 어기기' 집단적 결의/95.4.18 1 384 / 212
- 해고노동자 전경에게 폭행 7명 병원후송/95.4.19 2 385 / 215
-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95.4.20 1 386 / 216
- 경찰, 새벽 병원난입, 노동자 강제연행/95.4.21 1 387 / 218
- 해고노동자 구속연행 항의집회, 총 11명 구속/95.4.22 1 388 / 220
- 민주노총 해고자특위, 무기한 단식농성/95.4.25 2 389 / 223
- 안산 우신공업 노조 5명 구속, 노조파괴반 3월부터 합숙훈련/95.4.26 2 390 / 225
- 공대위, 해고자 폭행·사당의원 난입 강력 대응키로/95.4.29 1 393 / 230
- '이랜드 신화'에 가려진 노조탄압, 이랜드그룹 부당해고노동자 농성 43일째/95.5.9 1 398 / 243

<철도, 지하철파업>

·AI,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전기협외장 서선원씨 석방 촉구/95.3.23 2 367 / 176

<민주노총준비위>

- 노사관계부문에 세계화 추진 촉구, 민주노총준비위 성명발표/95.1.11 2 321 / 70
- 외국인취업연수생 농성4일째, 공대위 구성 움직임/95.1.12 1 322 / 71
- '95 사회개혁투쟁 전개-민주노총 준비위/95.3.28 2 370 / 182
-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활동 위축, 민주노총 조직적 대응모색/95.4.1 1 374 / 191
- 안산 우신공업 노조 5명 구속, 노조파괴반 3월부터 합숙훈련/95.4.26 2 390 / 225
- 민주노총 준비위 해고자폭행사태 설명회/95.4.28 2 392 / 229
- 민주노총, 노동절맞아 민주노총 원년 선포/95.4.28 2 392 / 229
- 수도권 노동자대회 3만 노동자 참가/95.5.2 1 394 / 235
- 대검 수배자 검거령 비난, 민주노총 준비위/95.5.11 2 399 / 248

노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 청구소송/94.12.23 1 314 / 52

단체탐방

- 단체탐방 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94.12.10 3 305 / 32
- 단체탐방 39/노동정책연구소/95.1.21 2 329 / 87

도시빈민

<노점상>

- 용역깡패 노점상 덮쳐 사당동노점상 4명부상/95.1.19 2 327 / 82
-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들 생존권 찾기 한달 보름/95.1.21 1 329 / 86
- 용역직원 동원, 노점상 생계위협/95.1.24 2 330 / 89
- <현장스케치>-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장애노점상 최정환씨/95.3.14 2 360 / 161
- 노점상·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전국노점상연합회 집회/95.3.17 1 363 / 167
- 분신 장애노점상 최정환씨 운명-장례위원회 25일 빈민장으로 치르기로/95.3.22 1 366 / 173

·강제철거, 노점단속 강력규탄-최정환씨 장례식/95.3.25 1 369 / 179

·노점상연합회 간부에 최정환씨 장례로 소환장/95.4.4 1 375 / 194

<철거민>

- 금호재개발지구 철거민 고공농성중 박균백씨 16일 분신/95.3.17 1 363 / 167
- 금호지구 철거민 침묵시위-'세계인권사진전'서 직접 인권탄압 현실 고발/95.3.21 2 365 / 172
- 경찰 시신탈취 영결식 못한 채 안장-분신 최정환씨 장례식/95.3.28 1 370 / 179
- <독자투고> 박균백씨 사건으로본 이땅의 철거문화(고상만 전국연합인권위)/95.4.6 1 376 / 197
- 박균백씨 치료보장등 용역회사와 합의, 금호지구철거대책위/95.4.12 1 380 / 204
- 빈민대회, 용역단속방 해체·강제철거 중단등 촉구/95.4.15 1 383 / 210
- 서울 봉천동, 철거반원 자궁에 연탄재 쏘서넣어/95.4.27 2 391 / 227
- 경찰, 봉천동 철거폭력 수사의지 없다/95.4.28 1 392 / 228
- 봉천동철거 성폭력책임자 처벌 요구 성명/95.5.6 2 397 / 242
- 봉천동 성폭력 적준개발, 16개 지역에서 철거용역 맡아/95.5.11 1 400 / 247

미군범죄

-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95.1.14 2 324 / 75
- 미군의 비협조로 1년동안 담보, 미군 아리랑 택시 정양환씨 폭행사건 1년/95.1.27 2 333 / 95
-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미군규탄집회키로/95.2.11 2 340 / 112
- 미군범죄 규탄 미군기지 '인간 떠잇기' 무산/95.2.21 1 346 / 126

<설은주씨등 세모녀폭행사건>

- 미군 세모녀 폭행사건에 컴퓨터 통신 분노폭발/94.12.8 2 303 / 28
- <자료> 미군 세모녀 폭행사건 피해자 설은주씨 편지(발췌)/94.12.9 2 304 / 30
- 세모녀 폭행사건, 한국검찰 미군병사 소환조사에 미8군 불응/94.12.21 1 312 / 47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세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소환조사 요구/94.12.24 1 315 / 53
- 세모녀 폭행 미군 범죄자 소환 거부 두달째, 규탄대회 가져/95.1.7 1 319 / 65
-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95.1.14 2 324 / 75
-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미군규탄집회키로/95.2.11 2 340 / 112
- 미군범죄 규탄 미군기지 '인간 떠잇기' 무산/95.2.21 1 346 / 126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세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소환조사 요구/94.12.24 1 315 / 53
- 각 단체 새해계획-여연·정대협·성폭력상담소·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95.1.5 2 317 / 62
- 미군범죄 규탄 미군기지 '인간 떠잇기' 무산/95.2.21 1 346 / 126
- 집회금지 두 시간전 통보도 적법하다-서울시 이의신청 각하/95.2.24 2 349 / 134
- 미군범죄 미군당국의 동의 후 공개-경찰청 지시/95.2.28 2 351 / 139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95.4.27 1 391 / 226

법제

- 서울지법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법이더라도 연행은 불법/94.12.15 1 308 / 38
- 서울지법 미란다원칙 판결요지/94.12.15 2 308 / 39
-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94.12.22 1 313 / 49
- 대한변협, 민변 형소법개정법률안서 제기-변호인 참여권 필요/95.1.6 2 318 / 64

-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 확인서' 필요-서울지검, 특별지시/95.2.11 2 340 / 112
- 검열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전기통신사업법등 개정안 발효/95.2.21 2 346 / 127
-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95.2.21 2 346 / 127
- 사법개혁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돼야-민변, 의견 밝혀/95.2.24 1 349 / 133
-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95.3.11 2 359 / 159
- 광주 구속수사·재판 여전-94년 집행유예 67.5%/95.3.18 1 364 / 169
-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17·32조/95.4.14 1 382 / 208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정보통신 검열 시작/95.4.14 1 382 / 208
-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김기중변호사)/95.4.22 2 388 / 221

<긴급구속>

- '94 인권10대뉴스-문민정부 긴급구속장 남발/94.12.27 3 316 / 57
- 오종렬의장 긴급구속/95.1.5 2 317 / 62
- 네팔노동자 성폭행한 공장장 긴급구속/95.1.12 1 322 / 71

<사형제도>

- AI 한국지부 '국보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조약 유보없이 가입'등 촉구/94.12.10 1 305 / 31
- 불교인권위 총회 공동대표 선출·사형폐지위원회등 신설/94.12.21 1 312 / 47
- 천주교 조작간첩대책위, 조작혐의 장기수 면회/94.12.22 1 313 / 49
- 고문조작의혹 부산국교생 유괴사건 피의자에 사형구형/95.1.24 1 330 / 88
- AI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가혹행위 제조사 요구/95.1.26 2 332 / 93
- AI 한국지부, 25일 사형제도 자료집 발행/95.2.23 1 348 / 131

<손해배상청구소송>

-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활동 위축, 민주노총 조직적 대응 모색/95.4.1 1 374 / 191
-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상대로 손배소송제기/95.4.4 1 375 / 194
-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95.5.10 1 399 / 245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황대권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95.3.28 1 370 / 181

북한인권

-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발족/94.12.16 2 309 / 41
- AI '북한인권보고서' 무단으로 배긴 한국정부, 보고서 회수등 약속/95.1.6 1 318 / 63
- 전쟁포로 장기수 송환에 응답, 북한 불교도연맹/95.1.26 1 332 / 92

불처벌

- 고문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95.1.10 2 320 / 68
- 「바른역사를 위한 민족회의」 창립/95.2.16 1 343 / 119
- 헌법재판소, 황대권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95.3.28 1 370 / 181
- 4·3항쟁 위령제 갖고 진상규명 다짐/95.4.4 2 375 / 195
- 인혁당 20주기 추모제 열려/95.4.11 1 379 / 202

- <현장스케치> 4월혁명전시회 '깎뎠기는 가라'/95.4.18 2 384 / 213
- 제6회 4월혁명상 윤상원·신장균씨 수상/95.4.19 2 385 / 215

<12·12>

- 12·12 반란자 기소, 특별검사제 도입촉구/94.12.13 1 306 / 34
- 남총련, 현재 12·12의 정치적 결정 규탄/95.1.26 1 332 / 92

<5·18>

- 선거법 개악음모 중단, 5.18책임자 처벌 요구-광주교도소 양심수 단식/95.3.9 2 357 / 155
- 5·18묘역 국립묘지 승격 촉구하 전대통령 증언촉구/95.4.6 1 376 / 196
- 광주학살 책임자 '기소촉구'운동 펼쳐, 광주민중항쟁 15주년 앞두고 진상규명요구/95.5.9 1 398 / 243
- 피터슨목사 증언 예정, 전국연합 집회서/95.5.11 2 400 / 248

<삼청교육대>

- 전두환 최규하등 삼청교육 관련 재고소/95.2.11 2 340 / 123

<정신대>

- 서울에서 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열려, 북한 정신대 할머니 참가 예정/95.2.17 1 344 / 122
-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51차 유엔인권위 3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95.2.22 2,3 347 / 129
- 북한 대표 불참한 채로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개막/95.2.28 1 351 / 138
- 시-이젤랑 돌려다오/95.2.28 1 351 / 138
- 일본군 중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95.3.2 1 352 / 143
- 배상특별법 제정 촉구-아시아연대회의 폐막/95.3.2 1 352 / 143
-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95.3.9 1 357 / 154
- 국제법률가위원회 중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95.3.15 2 361 / 163
-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95.3.22 2 366 / 174
- ILO 제29조 조약(강제노동금지조약) 제 11조/95.3.22 2 366 / 174
- 재일한국인단체, 전후보상·명예회복 촉구/95.4.14 1 382 / 208
- 일본군 위안부 영화 시사회/95.4.18 2 384 / 213
- <독자투고> 일본군 중군위안부 기록영화 '낮은 목소리'/95.4.20 2 386 / 215

<정대협---->여성>

<조작간첩사건(백흥용씨사건---->국가보안법)>

- 안동교도소 변호사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천주교인권위 교도소 고발예정/95.2.7 1 336 / 104
- '부산 신씨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95.2.14 2 341 / 115
- 조작간첩피해자 구제 특별법 요구-천주교인권위/95.3.17 1 363 / 167

사회보장권

-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94.12.6 1 301 / 23

사회단체

<고난모임>

- 고난모임, 올해 인권과 통일선교를 중심사업으로/95.3.3 1 353 / 146
- 동의대 구속자 석방 기도회 갖기로, 고난모임/95.3.22 1 366 / 173
- 5·3 동의대 사건 잊으셨습니까? 고난모임,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요구/95.5.3 2 395 / 238
- 5·3동의대 사건 집회 열려/95.5.4 1 396 / 239

<전국연합>

- 전국연합 이창복의장 징역 10개월 선고/94.12.10 1 305 / 31
- 국가보안법 철폐등 결의-전국연합, 대의원대회/95.2.21 1 346 / 126
-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이창복씨 항소심/95.3.25 1 369 / 179
- 인권유린 설명회 개최-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95.3.29 2 371 / 184
- 국보법 이적성 판단 '줄속' 드러나-이창복씨 사건 항소심 증인 신문에서/95.3.30 1 372 / 185
- 전국연합, 한반도평화협정 계기 정책토론회/95.4.1 1 374 / 191
-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선고, 이창복씨 석방/95.4.7 1 377 / 198
-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광주연합 성명 발표/95.4.8 1 378 / 200
- <자료>-이창복씨 국보법 위반무죄 판결중 제7조에 대한 법원판단 부분/95.4.11 2 379 / 203
- 전국연합등 32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선거법 87조 폐지요구/95.4.13 2 381 / 207
- 광주전남연합등 성명, 재야회원 실행선고 규탄/95.4.15 2 383 / 211
- 정부 안전사고대책 질타, 전국연합 대구참사 논평/95.4.29 1 393 / 230
- 국보법·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95.5.2 2 394 / 234
- 전근대적 노동정책 철폐, 전국연합·AI 한국지부 노동절 성명/95.5.2 1 394 / 235

아동

-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1)/용모 때문에 차별받는 실업고생들/95.1.28 1 334 / 96
- 동일여고, 자치활동 관련 학생 3명 중징계/95.2.9 1 338 / 109
-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95.2.10 1 339 / 110
-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3), 프라이버시 침해/95.2.18 2 345 / 125
-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 인권, '2+1 제도' 1년 사실상 교육 포기/95.3.4 2 354 / 149
- 공동육아연구회, 공동육아현장학교 진행/95.4.6 1 376 / 196
- 유아 9백71명중 68명 학대·방임당해, 아동학대에방협회/95.4.19 1 385 / 214
-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 행사/95.5.6 2 397 / 214

<아동의 권리조약>

- 정부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 최초보고서 제출/95.1.25 1 331 / 90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95.1.25 1 331 / 90
-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구성키로/95.2.11 1 340 / 112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2차준비모임/95.2.23 2 348 / 132
-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씨 인터뷰/95.3.15 3 361 / 164
- 16개 단체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95.3.16 1 362 / 165
- <해설>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95.3.16 2 362 / 166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①> 어린이날에 생각하는 아이들의 권리/95.5.4 2 396 / 240
- 어린이 권리 홍보물 배포/95.5.6 2 397 / 242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②> 어린이의 생명·생존·발전권/95.5.10 2 399 / 246

양심수, 장기수

- 민가협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성황/94.12.13 1 306 / 34
- 비전향장기수 김인서등의 송환실현모임, 적십자사 통해 송환노력 촉구/94.12.16 2 309 / 41
- 천주교 조각간첩대책위, 조각협의 장기수 면회/94.12.22 1 313 / 49
- AI 유정식씨 검진 요구/94.12.24 2 315 / 54
- '연말연시에 장기수에게 연하장을'(장기수주소록)/94.12.24 2 315 / 54
- 신귀영씨 일가 간첩사건 재심신청 의견서 제출/95.1.5 1 317 / 61
- 김선명석방요구 목요집회/95.1.5 2 317 / 62
- 연말, 연초 인권소식-비전향장기수 소환요구/95.1.5 2 317 / 62
- 고문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95.1.10 2 320 / 68
- 불교인권위, 비전향장기수 송환위한 서명 시작/95.1.18 2 326 / 80
- 전쟁포로 장기수 송환에 응답, 북한 불교도연맹/95.1.26 1 332 / 92
- '자의적 구금' 6명 양심수 석방촉수, 민가협 목요집회/95.1.27 1 333 / 94
- 51차 유엔 인권위 개막-황석영씨등 자의적 구금, 정신대 문제 논의 예정/95.2.4 1 335 / 100
- 장기수가족후원회, 비전향 장기수 송환운동 전개키로/95.2.7 1 336 / 104
- 푸른영상, 출옥 장기수 다큐멘터리 제작/95.2.7 1 336 / 104
- 제일한국인등 정치범 석방 요구 일본 서명부 전달/95.2.10 2 339 / 111
-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51차 유엔인권위 3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95.2.22 2,3 347 / 129
- 빨치산 비전향 출옥 장기수 윤기남씨 위암 사망/95.2.28 2 351 / 139
- 광주지검, 비전향 장기수 장례식 수사/95.3.10 1 358 / 156
- 고 윤기남씨 장례 관련 12명에 출두요구서/95.3.15 2 361 / 163
- 선거법 개악음모 중단, 5.18책임자 처벌 요구-광주교도소 양심수 단식/95.3.9 2 357 / 153
- 비전향장기수 장례 파문 확산 조짐/95.3.14 1 360 / 160
- 고난모임 장기수들에게 시사지 보낼 후원자 모집/95.3.15 2 361 / 163
- 불교인권위, 장기수 장례식-재야인사 구속 비난 성명/95.3.17 2 363 / 168
- AI, 기세문, 이경률씨 무조건 석방 촉구/95.3.18 1 364 / 169
-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상대로 손배소송제기/95.4.4 1 375 / 194
- <인터뷰> 제일한국인정치범 손유형씨 부인 부신화씨/95.4.7 2 377 / 199
- 북한의 비전향장기수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95.4.13 2 381 / 207
- 김대중씨와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 양심수석방 노력 약속/95.4.15 2 383 / 211
- 장기수 강철순씨 운명/95.4.18 2 384 / 213
- 18일 비전향장기수 송환호소, 김인서씨등 기자회견/95.4.19 1 385 / 214
- 장기수 고강철순씨 장례/95.4.20 2 386 / 217

<조작간첩---->불처벌>

여성

- 방콕서 아시아여성법정, '여성인권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94.12.7 2 302 / 26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 10주년 기념 심포지엄/94.12.15 2 308 / 39
- 노동부, 여성근로자 50세 넘어도 유급생리휴가 인정/94.12.22 1 313 / 49
- 아시아여성회의 내년 1월 인도에서 열려/94.12.24 2 315 / 54
- 각 단체 새해계획-여연·정대협·성폭력상담소·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95.1.5 2 317 / 62

-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 다채롭게 꾸며/95.3.7 2 355 / 151
- 여성후보들 지방선거 적극적으로 참여/95.3.7 2 355 / 151
-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95.3.9 1 357 / 154
- 여성을 주제로 세계적으로 캠페인 펼쳐-AI/95.3.9 2 357 / 155

<가정폭력>

- 94년도 아내구타 2천1백26건-여성의 전화 상담 통계 발표/95.3.8 1 356 / 152
- 어머니 상습폭력 보다 못한 살인, 여성의 전화 구명운동 펼치기로/95.5.3 2 394 / 239

<북경여성대회>

-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여성대회 준비회의 열려/94.12.8 1 303 / 27
- <자료집요약-동아시아여성포럼 부분>/94.12.8 2 303 / 28
- 북경여성대회 참가신청 이번주 마감/95.4.20 2 386 / 217
- 여성장애인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 북경여성대회 준비 박차/95.4.20 2 386 / 217

<서울대 우조교사건>

-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항소심, 원고 신교수측증인 증언과정진술 번복/94.12.7 2 302 / 26
- 성희롱은 여성의 '일할 권리' 침해, 우조교사건 항소심 4차 공판/95.1.11 1 321 / 69
- '94 인권10대 뉴스-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우조교 승소/94.12.27 3 316 / 56
- 신교수측 증인과 엇갈리는 증인 2.15 1 342 / 116
- 우조교사건 재판부에 편지보내기운동/95.4.15 1 383 / 210
- 성희롱추방 거리 캠페인/95.4.27 2 391 / 227
- 성희롱 항소심 공정판결촉구 선전전/95.4.28 1 392 / 228

<성폭력상담소>

- 각 단체 새해계획-여연·정대협·성폭력상담소·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95.1.5 2 317 / 62
- 성폭력상담소 토요법률상담-변호사들 직접 상담/95.3.3 2 353 / 147
- 성폭력상담소 94년 상담통계 발표, 어린이 성폭력피해 심각/95.4.12 1 380 / 204
- 성폭력위기센터 개소 4주년/95.4.25 2 389 / 223
- 어린이성폭력예방비디오 홍보, 한국성폭력상담소/95.5.4 1 396 / 239

<성폭력, 성희롱 일반>

- "경찰관이 성폭행"-경찰청 진상조사 착수/95.3.30 1 372 / 185

<여성민우회>

- 남녀고용평등법 고발 관련 검찰 아직 결정 유보/94.12.10 1 305 / 31
- 여성단체등 용모제한철폐 촉구집회/94.12.14 2 307 / 37
- 여사원모집 채용시 용모제한 고소기소 촉구대회/94.12.16 1 309 / 40
- 용모제한고발 무혐의처리/95.1.5 2 317 / 62

<여성의전화>

- 강화여성의 전화 개소/94.12.23 1 314 / 52
- 여성의 전화 신입회장 신혜수씨 선출/95.1.18 1 326 / 80
- 94년도 아내구타 2천1백26건-여성의 전화 상담 통계 발표/95.3.8 1 356 / 152
-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원 교육 실시/95.3.9 1 357 / 154

- 여성의 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95.3.10 2 358 / 157
- <인터뷰>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종걸 변호사/95.3.10 2 358 / 157
- 한국여성의 전화 제24기 상담원교육/95.4.6 1 376 / 197
- 여성의 전화, 여성상담사례집 펴내/95.4.15 1 383 / 210
- 어머니 상습폭력 보다 못한 살인, 여성의 전화 구명운동 펼치기로/95.5.2 3 394 / 238

<정대협>

- KNCC 인권위 20주년 기념식, 인권상 정대협 이효재·윤정옥대표 수상/94.12.9 1 304 / 29
- 교회협인권상 수상 윤정옥대표 수상소감/94.12.9 1 304 / 29
- 「만남의 집」에서 추위에 떠는 정신대 할머니/94.12.17 2 310 / 43
- '94 인권10대 뉴스-국제법률가위원회 정신대 특별보고서 제출/94.12.27 3 316 / 57
- 각 단체 새해계획-여연·정대협·성폭력상담소·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95.1.5 2 317 / 62
- 위안부 삶 영화로 조명 <울밑에 선 봉선화야>/95.1.7 1 319 / 65
- 변협, 종군위안부 관련 국내 모든 자료공개 건의/95.1.12 1 322 / 71
-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단 4월경 한·일 방문/95.1.13 2 323 / 73
- 51차 유엔 인권위 개막-황석영씨등 자의적 구금, 정신대 문제 논의 예정/95.2.4 1 335 / 100
- 서울에서 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열려, 북한 정신대 할머니 참가 예정/95.2.17 1 344 / 122
- 아시아 5개국 여성이 함께 한 정대협 수요시위/95.3.2 1 352 / 143
-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95.3.9 1 357 / 154
- 보상특별법 제정 촉구-정대협 158차 수요시위/95.3.23 2 367 / 176
-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17일 강연, 정대협·대한변협/95.5.4 1 396 / 239

인권교육

- 성공회대학교 95년부터 「인권과 평화」 강좌 개설/94.12.6 2 301 / 23
- 11월28-30일 타이에서 아시아 인권교육정보센터 워크숍 개최/94.12.14 2 307 / 37
- AI 한국지부 95년 사업계획 확정/95.1.24 2 330 / 89
- 변호사 수입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95.2.14 1 341 / 114
- 평화인권교육 홍보, 정보교환등 추진/95.2.14 1 341 / 114
- 평화·인권·민주주의 아태지역 네트워크 결성키로-유네스코 한국위원회/95.3.29 1 371 / 183
- 노태훈씨 성공회대학 '인권과 국제인권단체' 강의/95.5.9 2 398 / 244

인권단체

<교회협인권위>

- 교회협인권상 수상 윤정옥대표 수상소감/94.12.9 1 304 / 29
- KNCC 인권위 20주년 기념식, 인권상 정대협 이효재·윤정옥대표 수상/94.12.9 1 304 / 29

<대한변협>

-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산건 재수사 촉구/94.12.20 1 311 / 44
- 대한변협, 민변 형소법개정법률안서 제기-변호인 참여권 필요/95.1.6 2 318 / 64
- 변협, 종군위안부 관련 국내 모든 자료공개 건의/95.1.12 1 322 / 71
- 안기부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대한변협 김남매진상조사 결과발표/95.1.27 1 333 / 94

-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95.1.27 2 333 / 95
-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대한변협 진상조사 촉구/95.2.8 2 337 / 105
- 로-스쿨 단호히 반대-대한변협 성명 발표/95.3.29 2 371 / 184
- 대한변협,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95.4.15 2 383 / 211
-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17일 강연, 정대협·대한변협/95.5.4 1 396 / 239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고문>

<민가협>

- 민가협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성황/94.12.13 1 306 / 34
- 김선명석방요구 목요집회/95.1.5 2 317 / 62
- '자의적 구금' 6명 양심수 석방촉수, 민가협 목요집회/95.1.27 1 333 / 94
- 김삼석 남매간첩사건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 민가협 목요집회/95.2.17 1 344 / 122
- 민가협 대전교도소 밤샘농성 3일만에 풀어/95.3.7 1 355 / 150
- 분단50주년 국보법 철폐 최대 과제로-민가협 10차 총회 가져/95.3.11 1 359 / 158
- 민가협 84차 목요집회/95.4.28 2 392 / 229
- 감옥창살마저 막아버린 영등포교도소 민가협, 법무부 항의방문/95.5.3 1 395 / 237

<민변>

- 대한변협, 민변 형소법개정법률안서 제기-변호인 참여권 필요/95.1.6 2 318 / 64
- 사법개혁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돼야-민변, 의견 밝혀/95.2.24 1 349 / 133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호 출판/95.4.22 1 388 / 220

<불교인권위>

- 불교인권위 총회 공동대표 선출·사형폐지위원회등 신설/94.12.21 1 312 / 47
- 불교인권위, 비전향장기수 송환위한 서명 시작/95.1.18 2 326 / 80
-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논평, 불교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95.1.19 1 327 / 81
- 검찰 법난 무혐의 처리에 불교단체 비난 성명/95.2.9 1 338 / 109
- 불교인권위, 장기수 장례식-재야인사 구속 비난 성명/95.3.17 2 363 / 168
- 서초구청장 구속 촉구-불교인권위원회/95.3.23 2 367 / 176
- 불교인권위 승려인권문제연구소 발족/95.4.20 1 386 / 216

<서울지방변호사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엄/94.12.14 1 307 / 36
- 서울지방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소/94.12.14 2 307 / 37
- 서울변호사회 회장에 김성기 변호사/95.1.24 2 330 / 89

<외국인노동자피난처>

- 동티모르지원시민모임, 외국인노동자피난처에서/94.12.15 2 308 / 39
- 공공부문 노조전임자 축소기도 반대, 민주노총준비위/95.1.13 2 323 / 73
- 피난처 유린 분노 지방서 석방 요구-외국인 연수생 공대위/95.3.22 1 366 / 173
- 김재오씨등 필리핀방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위해/95.4.20 1 386 / 216

<유가협>

- 의문사 청원심사소위 구성하기로, 국회법사위/95.1.24 2 330 / 89
- 합동추모제 6월3일-추사연대회의 총회/95.3.28 2 370 / 182
- 의문사 진상규명 다짐-김용갑씨 5주기 추모제/95.3.29 1 371 / 183
- 김상진열사 20주기/95.4.6 1 376 / 197
- 김상진열사 20주기 출판기념회 열려/95.4.12 2 380 / 205

<인권운동사랑방>

- 국보법 위헌심판 제청에 대한 논평, 불교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95.1.19 1 327 / 81
-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인권단체편람』 1판 발간/95.2.8 2 337 / 107
- 서준식씨 공판 무기연기/95.2.23 1 348 / 131
- 노태훈씨 성공회대학 '인권과 국제인권단체' 강의/95.5.9 2 398 / 244

<인권협>

- 천정배변호사, 아태민간단체 촉진팀회의 참석, 2-3일 방콕/94.12.14 1 307 / 36
- 연말, 연초 인권소식-비전향장기수 소환요구/95.1.5 2 317 / 62
- 고문방지협약 청원권 유보철회 요구, 인권협 성명발표/95.1.10 1 320 / 67
- 유엔51차 인권위 모니터 위해 출국, 이성훈씨 인권협대표로 참석/95.1.17 2 325 / 77
-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 종교·사상·양심의 자유위배, 인권단체 서강대 앞 시위/95.1.18 1 326 / 79
- 인권협 김평화상 수상반대/95.1.24 2 330 / 89
- 인권협, 김대통령 김평화상 수상 반대시위/95.1.26 1 332 / 92
- 인권협 95년 활동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95.2.10 2 339 / 111
- 비전향장기수 장례 파문 확산 조짐-한국전 관련단체 협박성 파상공세 전개/95.3.14 1 360 / 160
- 유엔인권위 모니터활동 이성훈씨 귀국/95.4.7 1 377 / 198
- 불교인권위등 9개단체 양심수 대사면촉구/95.4.28 2 392 / 229

<천주교인권위>

- 신귀영씨 일가 간첩사건 재심신청 의견서 제출/95.1.5 1 317 / 61
- 안동교도소, 변호사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천주교인권위, 교도소 고발예정/95.2.7 1 336 / 104
- '부산 신씨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95.2.14 2 341 / 115
- 조작간첩피해자 구제 특별법 요구-천주교인권위/95.3.17 1 363 / 167

인권어록

- <인권어록①>-이승만과 나라세우기전, 한국 언론의 두 얼굴/95.3.15 1 361 / 162
- <인권어록 ②>-종전 50년과 해방 50년의 차이/95.3.22 1 366 / 173
- <인권어록 ③>-진정한 삶의 질은?, 간첩이 자유로운 나라/95.3.29 1 371 / 183
- 인권어록/95.4.12 1 380 / 204
- 인권어록/95.4.19 1 385 / 214
- 인권어록-통일시대의 어리석은 일은?/95.4.26 1 390 / 224
- 인권어록/95.5.3 1 395 / 237
- 인권어록/95.5.10 1 399 / 245

인권일반

- A규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글(1)-'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94.12.17 2 310 / 43

·A규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글(2)-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94.12.20 2,3 311 / 45
 ·A규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글(3)-A규약의 실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94.12.21 2 312 / 48
 ·A규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글(4)-정부 최초보고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94.12.22 2,3 313 / 50
 ·필리핀서 아태지역 인권과 개발에 관한 사회활동가회의 개최 예정/94.12.24 2 315 / 54
 ·김영삼대통령 「킹평화상」 수상자로 결정/95.1.5 1 317 / 61
 ·AI '북한인권보고서' 무단으로 베낀 한국정부, 보고서 회수등 약속/95.1.6 1 318 / 64
 ·강원 고한 광부들 9일째 농성/95.1.6 2 318 / 64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95.1.11 2 321 / 70
 ·분신 전력 임윤선씨 경찰 프락치로, IS 구속자 가족대책위 폭로/95.1.11 2 321 / 70
 ·서강대 박홍총장 인터뷰/95.1.17 1 325 / 76
 ·서약서 강요는 기본적 인권침해 서강대생 86% "서약서 작성 자체 부정적"/95.1.17 1 325 / 76
 ·서강대총학생회 '서약서되돌려받기' 전개/95.1.18 1 326 / 79
 ·좌경거부 서약서 강요 종교·사상·양심의 자유 위배, 인권단체 서강대 앞 시위/95.1.18 1 326 / 79
 ·서강대총학생회 총장 사과 '서약서 반환'결의/95.1.20 1 328 / 84
 ·고 황인철번호사 2주기, 추모문집 출판기념회도/95.1.21 1 329 / 86
 ·언론의 인격권 침해제재 「FEEL」 호스티스 기사/95.1.24 1 330 / 88
 ·인권협 킹평화상 수상반대/95.1.24 2 330 / 89
 ·인권협, 김대통령 킹평화상 수상 반대시위/95.1.26 1 332 / 92
 ·푸른영상, 출옥 장기수 다큐멘터리 제작/95.2.7 1 336 / 104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인권단체편람』 1판 발간/95.2.8 2 337 / 107
 ·미 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 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행 막는 최대의 장애물 /95.2.16 2,3 343 / 120
 ·민간인 군부대에 연행 일주일, 가족에게 전화로만 알려/95.2.18 1 345 / 124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 ②-각종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95.2.25 2 350 / 136
 ·<인터뷰-패리스 하비 목사>/95.3.3 1 353 / 146
 ·김홍신씨 사건은 표현의 자유 탄압-민족작가회의 성명/95.3.10 2 358 / 157
 ·고난모임 장기수들에게 시사지 보낼 후원자 모집/95.3.15 2 361 / 163
 ·로-스쿨 단호히 반대-대한변협 성명 발표/95.3.29 2 371 / 184
 ·통일염원 미사 시작돼-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95.3.29 2 371 / 184
 ·8·15 50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 제안/95.4.1 1 374 / 191
 ·한일인권포럼 열려/95.4.1 1 374 / 191
 ·4일은 정신건강의 날, 정신질환자의 문제공유/95.4.6 2 376 / 197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사카에서 개최, 국보법 철폐결의/95.4.7 2 377 / 199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촉구, 광주연합 성명 발표/95.4.8 1 378 / 200
 ·<고베 대지진 현장을 돌아보고> 복구정책에 민족적 차별은 있다/95.4.8 2 378 / 201
 ·지자체 후보공천 신청 재야단체 실무자 구속/95.4.13 1 381 / 206
 ·대한변협,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95.4.15 2 383 / 211
 ·참여연대 1차 국제포럼/95.4.19 2 385 / 215
 ·시민 이형기씨 진술내용/95.4.25 1 389 / 222
 ·과출소폭행 사과요구 분신, 시민중태/95.4.25 1 389 / 222
 ·민간단체, 유엔 사회권조약 보고서 작성완료, 회의 참석/95.4.26 1 390 / 224
 ·안산경찰서 "이형기씨 폭행한 적 없다" 변명, 안산지역단체 공동대책 모색/95.4.26 1 390 / 224

<현장스케치> 경찰폭행에 항의 분신한 이형기씨 모습/95.4.26 2 390 / 225
 ·이형기씨 국립의료원 입원/95.4.27 2 391 / 227
 ·사회권위원회 제12차회기 민간단체 대표 출국/95.4.29 1 393 / 230
 ·5·3 동의대 사건 잊으셨습니까? 고난모임,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요구/95.5.3 2 394 / 238
 ·5·3동의대 사건 집회 열려/95.5.4 1 396 / 239
 ·<독자기고> 티벳의 노승려·세계화·인권 (혜진스님)/95.5.6 2 397 / 242
 ·<인터뷰> 유엔 아프카니스탄 특별보고관 백충현교수/95.5.9 2 398 / 244

<언론의 인권침해>

·언론연구원 교육, 언론의 인권침해 강의/95.4.13 2 381 / 207
 ·또하나의 부끄러운 방송사, 대구가스폭발사고 보도/95.5.6 1 397 / 241

<환경>

·인천 핵폐기장 시민대책위 구성, 굴업도 김계월씨 가족장/95.1.18 2 326 / 80
 ·핵폐기장 반대운동 탄압 무법천지-굴업도 주민 명동성당 항의농성 6일째/95.3.8 1 356 / 152
 ·<현장스케치>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농성 7일째/95.3.9 2 357 / 155
 ·인터뷰-핵폐기장 결사반대 덕적면 투쟁위원회 조직부장 정창준(39)씨/95.3.9 2 357 / 155
 ·<특집>포천 주민들의 병원적출물 소각장 반대싸움/95.4.27 1 391 / 226
 ·포천소각장 회사측 법정대리인 사임 밝혀져/95.4.28 2 392 / 229

장애인

·장애인 재활시설 해인원 비리 폭로 노조위원장 구속/94.12.24 1 315 / 53
 ·<현장스케치>-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장애인노점상 최정환씨/95.3.14 2 360 / 161
 ·장애인 복지 발전 추구 공동대책협의회기구 구성/95.3.21 2 365 / 172
 ·분신 장애인노점상 최정환씨 운명-장애위원회 25일 빈민장으로 치르기로/95.3.22 1 366 / 173
 ·강제철거, 노점단속 강력규탄-최정환씨 장례식/95.3.25 1 369 / 179
 ·경찰 시신탈취 영결식 못한 채 안장-분신 최정환씨 장례식/95.3.28 1 370 / 181
 ·장애로 인해 집중적인 차별에 시달려, 여성장애인 공청회/95.4.8 1 378 / 200
 ·장애인 10% 공천, 비례대표제 참여 촉구/95.4.12 1 380 / 204
 ·장애아동과 어깨동무, 장애인의날 행사/95.4.15 1 383 / 210
 ·여성장애인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 북경여성대회 준비 박차/95.4.20 2 386 / 21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강용씨 불합격은 장애인차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94.12.15 1 308 / 38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94.12.16 1 309 / 40
 ·장애아동과 어깨동무, 장애인의날 행사/95.4.15 1 383 / 210

<장애인접근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94.12.16 1 309 / 38

<장애인취업>

·정강용씨 불합격은 장애인차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94.12.15 1 308 / 38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발표/95.4.21 2 387 / 219

행형실태

- <IBA 세미나 보고서>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95.2.24 2 349 / 134
-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고 있다-민가협 목요집회/95.3.3 1 353 / 146
- <긴급> 대전교도소 철야농성 경찰 강제연행 위협/95.3.4 1 354 / 148
- 민가협 대전교도소 밤샘농성 3일만에 풀어/95.3.7 1 355 / 150
-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법무부 입장 밝혀/95.3.30 2 372 / 186
- 감옥창살마저 막아버린 영등포교도소 만가협, 법무부 항의방문/95.5.3 1 395 / 237

<인권하루소식> 합본 IV

펴낸날 · 95년 7월 10일

펴낸이 · 서준식
펴낸곳 · 인권운동사랑방

주소: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대표전화: 02-715-9185 팩스: 02-7159186
PC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컴)

값 10,000원